

華嚴書院 山仰會報



영귀서원(詠歸書院) : 1564년 옥과 유림들이 河西를 추모해 건립한 서원

삼양그룹은 식품만이 아닙니다
화학부터 의약까지 풍요로운 생활을 위한
모든 것에 삼양그룹이 있습니다

세상을 편리하게 바꾸는 첨단화학소재부터 69억 세계인이 꿈꾸는 항암제까지-
풍요로운 미래를 위한 삼양그룹의 노력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첨단소재를 발견하신다면 확인해보십시오. 아마 삼양그룹이 만든 것일지도 모릅니다

풍요로운 생활의 시작 **samyang**

先人들과 같이 우리도 儒學의 근본 정신으로 개혁합시다

산양회 이사장 鄭煥淡

지난 11월의 산양회이사회(仙仰會理事會)에서 오인균(吳仁均) 이사장님의 뒤를 이어서 사단법인 필암서원 산양회의 이사장 직무를 저에게 명하셔서 송구함을 무릎쓰고 중책(重責)을 맞게 되었습니다.

필암서원 산양회(筆巖書院 仙仰會)는 하서선생(河西先生)을 사종(師宗)으로 숭상하고, 필암서원을 성학수련(聖學修練)의 도량(道場)으로 영구(永久) 보존 발전시키며 도학(道學), 절의(節義), 문장(文章)을 연구하여 사도(斯道)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서기 2001년 8월에 전국 유림(儒林)의 중망(衆望)에 따라서 필암서원에서 발족되었고, 그 후 13년 동안에 심오한 학술적 업적과 〈산양회보〉 간행 및 사문의 화합 발전의 기초 작업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근년에 하서선생의 도학(道學)과 절의정신(節義精神)을 오늘의 사회적 요구에 맞게 되살려 새롭게 해석하고 이를 실천하고자 공익사단법인(公益社團法人)으로 체제를 개편하였습니다.

하서선생 탄신 500주년을 맞이하여 국제적인 학술교류로 하서사상의 국제화를 꾀하였고, 금년 10월부터서는 중국(中國)의 4대서원인 악록서원(岳麓書院)과 상호교류협정을 맺음으로써 필암서원의 세계문화유산적(世界文化遺産的) 가치를 더욱 높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河西先生은 호남(湖南)에서 우뚝 서 있는 조선조 중기의 대동량(大棟樑)입니다.

일찍이 중원(中原)에서 孔子를 비롯하여 무수한 선현(先賢)들이 백성을 근본으로 삼고 화합(和合)과 후생(厚生)이 넘치는 이상국가를 건설하고자 대동(大同)과 왕도(王道)의 정신으로 유학(儒學)을 세워오셨습니다. 또한 근역(閭域)에서도 단군(檀君)의 홍익인간(弘益人間)이라는 개국정신으로 한민족(韓民族) 정기의 맥(脈)을 세워 왔습니다. 중원과 근역의 큰 뜻이 결합하여 이 땅에 정포은(鄭圃隱)을 비롯하여 점필재 김종직, 한원당 김굉필, 정암 조광조, 복재 기준, 모재 김안국 등 큰 선비의 맥을 이어서 이곳 호남에 하서라는 지치주의(至治主義)의 큰 동량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하서선생은 1510년에 탄생하시어 소년시대부터 큰 재목감으로 성장하셨고, 성균관 사마시에서부터 승승장구 하시어 별시문과(別試文科)에 급제하여 승문원부정자(承文院副正字)로 호당(湖堂)에 뽑

허서 나송재(羅松齋), 이퇴계(李退溪), 임금호(林錦湖), 유미암(柳眉巖) 등과 교유하면서 호당수계(湖堂修契)를 맺는 등 당시 사림(士林)의 중추를 이루었습니다.

선생은 면앙 송순(晩仰 宋純), 신재 최산두(新齋 崔山斗), 눌재 박상(訥齋 朴祥)에게서 글을 배웠고, 면앙 정가단(晩仰 亭歌壇)에도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철(鄭澈), 조희문(趙希文), 양자징(梁子徵), 기효간(奇孝諫)등 많은 제자들을 배출하였습니다.

선생은 1543년 7월 부수찬으로서 경연(經筵)에서 기묘사림(己卯士林) 조광조, 김식, 김정 기준등의 복권을 주청하여 기묘명현의 신원복권(伸冤復權)을 처음으로 주청한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선생은 시강원설서(侍講院說書)가 되어서 인종(仁宗)의 세자시절 스승이 되셨고, 세자가 성군(聖君)이 되도록 정성을 다하셨고 세자가 등극하여 이상정치(理想政治)를 소망하였으나 등극하신 후 1년도 못되어 승하하심을 보고 하향하여 후진양성과 경학의 찬술에 여생을 보내셨습니다.

선생은 천명도(天命圖), 대학가의발(大學講義跋), 주역관상편(周易觀象篇), 서명사천도(西銘事天圖) 태극도설(太極圖說), 사단칠정논변(四端七情論辨) 등 많은 업적을 내고 51세에 별세하셨습니다. 이곳 필암서원은 선조 23년, 선생 사후 30년만에 건립되었고, 이어서 가신 후 99년만에 사액(賜額)되었고, 탄생하신 지 236년만인 정조 20년에 문묘에 배향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필암서원은 하서선생 생존시나 서거(逝去)하신 후에도 항상 호남 사림(湖南 士林)의 중심이었고, 또한 조선조 지치학풍(至治學風)의 온상(溫床)이었습니다.

해방 후 서원제향(書院祭享)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1953년에 유지(有志) 26인이 산양계(山仰契)를 발기하여 전국 유림의 참여로 결성되었다고 합니다. 그후 50년이 되는 2001년 8월에 필암서원 산양회는 현대적 학술조직으로 재출발하였으며 2011년 10월에 사단법인으로 등록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서원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현대적 모습으로 거듭 태어나야 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망됩니다. 회고하건대 우리의 선인들은 모두 당대의 소임에 맞추어서 최선을 다하여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온고(溫故)에서 못 벗어나한다면 어찌 지신(知新)할 수 있으며 창신(創新)을 할 수 있겠습니까?

유학(儒學)의 근본 정신으로 선인들이 당대에 개혁하셨으니 우리도 유학의 근본 정신으로 현대의 불합리와 불의를 현정(顯正)하는 정신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山仰會 여러분의 적극적인 분위기 개선을 모색하여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과제를 연구하여 이른바 「山仰會 全會員의 幹部化」 방안을 연구실천하여보고자 합니다.

생산적이고 친척적인 공의공론(公議公論)이 소통되는 山仰會 대협동체(大協同體)를 구상해 보고자 합니다. 쉬면 썩는다(休卽必虧)는 마음으로 동즉활(動則活)의 정신으로 회원의 관심과 참여를 최대한으로 동원하고자 합니다.

많은 질정(乚正)을 바라는 바입니다.

山仰會長 임기를 마치고

吳 仁 均

筆巖書院은 1950년 6·25동란으로 인하여 闕享이 이어지고 수복 후 1951년 秋享부터 復享되었다. 1952년 다소의 성금이 조성된 가운데 선생의 향사를 모시고 그 학문과 정신을 교육시키기 위하여 1953년 安圭容을 비롯한 26인의 院中 章甫들이 山仰契를 조직하고 성금 확장에 힘을 기울여 契畵 24斗落을 조성하게 되었다. 國中의 名儒들을 초청하여 제관을 위촉하였으며 享祀前夜에 齋宿 소감으로 漢詩를 題詠하고 享祀 後에도 一夜를 숙박하면서 반드시 강학을 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시 筆巖書院을 전국의 모범서원이라고 모두 稱賀하였다.

書院은 원래 先賢을 숭모하는 제사를 모시고 또한 학문을 닦는 尊賢과 養士의 두가지 일을 하는 곳으로서 본 서원은 이를 선도적으로 해왔던 것이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 사회는 서구의 물질 문명의 영향으로 크게 변하기 시작하여 시장경제가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되었다. 물질만능의 풍조가 팽배하여 인생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정작 필요한 가치를 가르치는 일을 소홀히 한 나머지 우리 유학의 근본인 윤리 도덕은 점점 무너지고 우리 儒林의 立地는 날로 좁아지게 되었다.

수천년 이어져 내려오는 유교문화는 우리 민족의 귀중한 지혜자본이다. 유교의 근본인 윤리 도덕의 질서로서 산업사회의 기술문명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새롭게 기여할 수 있다는 사회적 요구가 고조되어 이에 부응하여 우리 유림은 서원 문화와 선비문화를 현대화해야 할 시대적 과제를 안게 되었다. 그러므로 한국유교의 나아갈 길, 우리 유림의 나아갈 길을 찾기 위하여 山仰會가 기존의 山仰契의 정신을 이어받아 2001년 8월 22

일 재발족하고 山仰會報를 창간하게 되었다.

초대 安晉吾 회장 2대 朴鍾達 회장 그리고 2007년 12월 小生이 3대 회장으로 취임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그간 우리 山仰會는 매년 총회를 개최하여 조직을 강화하고 조직을 통한 유교 이념을 실천하고 참여하고 봉사하는데 노력하였으며 또한 매년 학술발표회를 개최하여 百世의 스승이신 河西 선생의 학문을 연구 講明하고 斯道 계승 발전에 노력해왔다.

小生이 재임중 2010년에 ‘河西선생 탄생 500주년 기념 문화 축전’을 개최하게 되었다. 그 일환으로 먼저 2009년 11월 6일 국제 학술 발표회를 장성군청 아카데미홀에서 성대히 끝나치고 두번째로 2010년 10월 8일 성균관대학교 설립 600주년 기념관 6층에서 국제 학술회의를 개최하여 성황을 이루었으며 그 연장으로 10월 15일 광주 향교에서 국제 학술 강연회를 성대히 개최하였다.

9월 24일 필암서원의 청절당에서 선생을 추모하는 ‘전국 지상 한시 백일장’을 개최 시상하였으며 또 전국 聲讀대회를 개최하였다.

10월 22일에는 장성 군민회관에서 柳承國 대회장을 비롯하여 각급기관장 단체장 참석리에 대회사 축사 등 의식행사를 치르고 河西 일대기를 그린 판소리 발표 또 퓨전 국악 및 시창공연을 하였으며 시가행진도 있었다.

11월 10일 부터는 ‘河西 선생 탄생 500주년 기념 문화축전’ 화보집을 위시해서 수많은 출판행사를 가졌다.

이와 같이 해서 문화 축전을 폭넓게 다양하고 다채롭게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막을 내리게 됨은 필암서원 모든 임원들의 공지가 아닐 수 없다.

이는 靑史에 빛날 것이며 후세에 귀중한 문화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할 것이다. 이 小生은 6년 간의 임기를 역임하면서 보다 큰 이상 실현을 이루지 못함을 아쉬워 하며 훌륭한 차기 鄭煥淡 회장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이만 이임사로 대합니다.

2013년 12월

筆巖書院 山仰會長 吳 仁 均

訓蒙齋 講會 趣旨

訓蒙齋山長 金 忠 浩

寒喧에 대한 人事말은 且置하고 本 講會의 趣旨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우리 先賢 들께서 講學하시면서 대체적으로 열흘마다 週期的으로 小講會를 열어 門下生들에게 그 동안 배웠던 글을 指摘背誦하도록 한 다음에 그 뜻도 質問하여 工夫의 進就度를 시험하고 激勵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春夏秋冬 四季節에 간간이 大講會를 열기도 하였는데, 大小 講會에는 모두 먼저 士相見禮나 相揖禮를 마당에서 거행한 다음에 강당으로 올라와 講會를 進行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번에는 三伏 더위라서 相揖禮를 생략하였습니다.

우리 淳昌郡의 栢芳山下와 秋嶺江上에 자리잡은 訓蒙齋는 文正公 河西 先生의 講學堂으로서 저 朱夫子의 武夷精舍에 버금가는 곳입니다. 우리 朱夫子께서는 亞聖으로서 秦始皇의 焚書坑儒 이후로 千五百年 동안 斷絶되었던 堯舜 孔孟의 道學을 다시 온 天下에 燦然히 밝혀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宋나라 이후로 元·明·淸에서 聖賢이 나오지 않아 그 道脈이 우리 東方으로 넘어왔습니다. 河西 先生께서 三代上 人物로서 仁宗大王이 갑자기 昇遐하시고 乙巳土禍가 일어남으로 인하여 唐虞政治의 큰꿈이 水泡로 돌아가자, 이 玉川 山中에 은거하시면서 講學하여 孔朱의 道學을 계승하여 우리 東方 儒學이 記根開花하도록 하는 開山祖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正祖大王은 河西 先生을 文廟에 從享시키는 批答에 이르시기를, “先正 文靖은 바로 우리 東方의 周子이다.”라고 하였습니다.

河西 先生은 이처럼 우리 儒學에 있어서 큰 별처럼 빛나 “海東의 濂溪요 湖南의 洙泗이다.” 라고 文廟 從享 敎書에 말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艮齋 田先生이 河西 先生을 極尊慕하여 訓蒙齋에서 두 차례나 講會를 열었으며, 乘桴浮海하기에 앞서 河西 先生의 不祧廟와 筆巖書院을 奉審하고 下直 人事를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天運인지 時運인지 그렇게도 隆盛하였던 우리 儒學이 지금은 마치 된서리 끝에 朔風寒雪까지 덮친 格으로 양상하기 비할 데 없어, 聖賢의 가르침인 道學과 人倫 등이 衰微하고 頹敗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눈보라 속에서도 한 그루 雪中梅가 홀로 꽃을 피워 봄소식을 전달하듯이 누군가가 儒學을 衰微해진 중에서도 講明하여 讀書種子가 단절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淳昌郡에서 河西 先生의 訓蒙齋를 復元 講學하도록 하고 講會도 해마다 開催하는 것입니다. 우리 淳昌郡守 黃淑周 城主님을 비롯해서 郡關係者 여러분들께 眞心으로 感謝드립니다. 그리고 이 三伏 더위에 枉臨해주신 京鄕章甫분들에게도 아울러 感謝드립니다.

孔紀 2564年 癸巳 7月 28日

河西 金麟厚

그리고 그가 만났던 사람들

고 영 진 (광주대학교 교수)

1. 김인후의 학문과 교유관계

호남의 대표적인 학자인 김인후는 1510년(중종 5) 전라도 장성현 大麥洞里에서 태어났다. 그의 집안은 본래 서울 근처에서 살았으나 위화도회군 때 給料官으로 활약하여 개국원종공신에 책봉된 5대조 金穩이 1413년 세자 책봉문제에 관련되어 賜死되자 부인인 驪興 閔氏가 3형제를 거느리고 맥동마을로 내려온 것을 계기로 장성에 정착하게 되었다. 이후 그의 집안은 그리 현달한 집안은 아니었으나 재지적 기반은 어느 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인후는 부친에게서 5세 때 천자문을 口受 받고 7세 때 格言과 至論들을 배우면서 학문의 첫 걸음을 내딛었다. 이미 6세 때 天字를 글제로 시를 지어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그는 8세 때 전라도 관찰사 趙元紀와 더불어 聯句를 지어 명성이 널리 퍼졌다. 9세 때는 奇遵이 고향에 내려왔다가 데려다 보고 크게 칭찬하며 “참으로

기특한 아이다. 마땅히 우리 세자의 신하가 되겠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10세(1519년) 때 전라도관찰사로 내려왔던 金安國을 찾아가 『소학』을 배웠으며 이 무렵 金若默을 만나 사귀면서 학자가 지향해야 할 바에 대해 도움을 받았다.¹⁾ 11세 때 『논어』·『맹자』·『중용』 등 四書와 五經으로 학문의 범위를 넓혀갔으며 특히 『대학』을 중시하였다. 13세 때에는 『詩經』에 침잠하였으며 『國風』편은 大註·小註를 아울러 천 번이나 읽었다. 서예에도 조예가 깊어 篆·隸·楷·草書를 매우 잘 썼다.

이어 연도는 확실하지 않으나 송순에게 가수업하였으며 18세인 1527년(중종 22)에는 기묘사화로 화순 동복에 귀양와 있던 최산두를 찾아가 수학하며 학문을 강론하였다. 또한 박상을 찾아가 학자로서의 마음가짐에 얻는 바가 있었다. 이후 眞德秀의 「讀書記」를 읽고 학자가 마땅히 힘써야 할 곳을 깨달아 『近思錄』을 공부하였다. 이 무렵 그는 사서·오경뿐만 아니라 諸

1) 김약묵은 김인후와 동서간으로 두 사람의 장인은 진안현감을 지낸 尹任衡이다.

子·史策까지 섭렵하였으며 天文·地理·百家·卜筮 등에도 두루 통달하였다.

1528년 서울에 올라가 성균관에 출입하였으며 1531년 사마시에 成運·徐敬德·白仁傑·鄭惟吉 등과 함께 합격하였다. 1533년 성균관에서 공부하면서 이황 등과 교유하였는데 이황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자 詩로써 이별하였다. 두 사람은 이황이 “더불어 교유한 자는 오직 김인후 한 사람뿐이다”고 할 정도로 우의가 돈독하였다.

1540년(중종 35)에 문과에 합격하였는데 손위 동서 金若默도 함께 합격하였다. 이듬해 김안국의 천거로 湖堂에서 賜暇讀書하였다.²⁾ 1543년 홍문관 박사 겸 세자시강원 說書를 역임하였다. 당시 인종은 『朱子大全』 한 질을 하사하여 김인후가 성리학을 연구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

뒤이어 홍문관 부수찬 겸 경연검토관에 올랐으며 그 해 겨울 부모 봉양을 이유로 물러나 고향에서 가까운 옥과현감에 임명되었으나 1545년 인종이 죽자 사직하고 귀향하여 학문 연구와 후학 교육에 힘썼다. 1546년에는 사돈 유희춘으로부터 얻은 주자의 『孝經刊誤』 跋文을 썼다. 이때 학도들을 가르치면서 반드시 먼저 『소학』을 읽히고 다음에 『대학』을 읽혔는데 한결같이 주자의 成法에 따랐다. 金從龍과 金從虎 두 아들을 가르침에 있어서도 『소학』을 10년이나 읽도록 하며 다른 책으로 바뀌 주지 않을 정도였다.

1547년 성균관 전적과 공조정랑 등에 임명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으며 시를 지어 문인들에게 보여주었다. 당시 중국의 학술이 크게 무너

져 陸象山과 王陽明을 숭상하고 참으로 주자를 아는 자가 드물어지자 후학들을 깨우치기 위해 서였다.

1548년에는 妻鄉인 순창 鮎巖村으로 옮겨 草堂을 세우고 訓蒙齋라 이름짓고 제자들과 학생들을 가르쳤다. 鄭澈과 梁子澄·趙希文·奇孝諫·卞成溫 등이 그 곳에서 학문을 연마하였다. 書齋 아래 靈江가에 있는 큰 바위는 정철이 스승으로부터 『대학』을 배웠다 하여 후세 사람들이 ‘大學巖’이라 이름 붙였다.

1549년에는 「大學講議跋」을 썼으며 또한 정지운의 「천명도」를 보고 그림 뒤에 題辭를 붙이고 자신 역시 「천명도」를 작성하였다. 이 해 가을에 父喪을 당하여 장사지내고 1550년 장성으로 돌아왔다. 이듬해 연이어 母喪을 당하여 6년 동안 禮를 극진히 하며 廬墓에서 지냈다. 홍문관 교리와 성균관 직강 등에 임명되었으나 병을 칭하여 나아가지 않았다.

1556년(명종 11) 서경덕의 「讀周易詩」를 읽고 「次花潭讀易詩韻」 2수를 지어 그의 학문 방식이 下學을 소홀히 하고 頓悟로 이끌 우려가 있는 것을 비판하였다.

1557년 주돈이의 「太極圖說」과 장재의 「西銘」에 깊이 침잠하여 「周易觀象圖」와 「西銘事天圖」를 저술하면서 성리설에 대한 연구를 본격화하였다. 여기에서 그는 太極은 德性的의 本領이며 西銘은 학문의 綱紀이므로 어느 한쪽도 폐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이즈음 『주자가례』를 읽고 빠진 글과 의심나는 뜻에 수정을 가하여 『家禮考誤』를 저술하였다.

2) 이때 김인후와 함께 뽑힌 사람은 崔演·嚴昕·宋麒壽·羅世纘·尹鉉·任說·李晃·林亨秀·金澍·鄭惟吉·李洪男·閔箕 등 12명으로 契를 만들었는데 관련 기록이 「湖堂修契錄」에 나와있다. (『河西全集』 續編附錄 「湖堂修契錄」 참조)

1558년 이항과 ‘태극도설’에 관해 강론하던 기대승이 와 의견을 구하니 태극과 음양을 一物로 보는 이항의 설에 반대하는 기대승이 옳다고 대답하였다. 이듬해에는 이항과 태극과 음양이 일물이 아니라는 점을 서간을 통해 논하고, 아울러 기대승이 이항과 사단칠정 논쟁을 벌이면서 의심나는 곳을 와서 질문하니 명쾌하고 정밀하게 논변하여 기대승이 그의 설을 많이 따랐다.

또한 나흠순의 견해를 따르는 노수신의 인식도심설을 비판하는 글을 써 뒤에 이항과 기대승이 노수신의 설을 반박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연대는 정확하지 않지만 이 무렵 채침의 『洪範撰著圖說』을 근본으로 하여 자신의 설을 첨부한 『洪範撰著作卦圖』를 저술하기도 하였다. 1560년 정월 “자신이 죽으면 을사 이후의 관직은 쓰지 말라”는 말을 남기고 임종하였다.

김인후의 사상 형성 과정은 크게 네 시기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 시기는 태어나서 18세까지로 부친과 김안국, 최산두 등 여러 스승으로부터 학문을 배우고 김약목 등과 교유하면서 사서·오경뿐만 아니라 諸子·史策까지 섭렵하고 천문·지리·백가 등에도 두루 통달했으나 아직 성리학을 완전하게 이해하지는 못했던 시기이다.

둘째 시기는 19세부터 36세까지로 서울에 올라가 성균관에서 공부하고 사마시와 문과에 합격하여 관직 생활을 하며 기묘사화 피화자들의 신원을 주장하고 교화를 강조하는 등 자신의 이상을 펼치다가 인종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관직을 그만두고 낙향한 시기이다.

셋째 시기는 37세에서 46세까지로 향촌에서 훈몽재 등 書齋를 짓고 학문 연구와 제자 양성에 힘썼으며 한편으로는 인종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인한 충격으로 心疾을 얻고 시와 술로 방황하기도 했던 시기였다.

넷째 시기는 47세에서 죽을 때까지로 성리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견해를 확립하고 활발한 학문적 토론과 논쟁을 통해 당시 비정통 주자성리학적인 경향에 대해 비판을 가하며 호남성리학, 나아가 조선성리학의 줄기를 세우는데 기여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김인후는 호남지역 정통 주자성리학의 흐름을 계승하고 이를 호남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나름대로 발전시켜 나갔는데 이는 김인후의 학문적 특징에서도 잘 나타난다. 스승 김안국을 통해 『소학』을 배웠던 그는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반드시 먼저 『소학』을 읽고 『대학』을 읽혔는데 한결같이 주자의 성법에 따랐다. 김안국은 1519년 4월부터 기묘사화가 일어난 직후인 12월까지 전라도관찰사를 지냈으며 잠깐 동안 전주부윤을 겸직하기도 하였다. 1년 전 경상도관찰사 때와 마찬가지로 그는 호남지역에서도 『소학』과 향약 시행 등 향촌교화에 힘썼다.

『소학』 중시 경향은 기묘사림의 학풍이라고 할 수 있는데 김안국은 바로 기묘사림의 학문적 전통을 선조대 사림에게 연결시켜주는 교량적인 역할을 하였다. 즉 이언적·권벌·이항 등을 통해 영남사림과 연결되기도 하고 김인후와 유희춘³⁾을 통해 호남사림에게도 학문적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3) 김인후는 유희춘과 시공간이다. 즉 유희춘의 아들인 柳景濂이 김인후의 사위이다.

김인후는 친구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젊었을 때 진덕수의 『독서기』를 읽고 학자가 마땅히 힘써야 할 곳을 깨달아 『근사록』을 공부했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 책 역시 『소학』과 함께 기묘사림의 학문적 기반으로 중시되었으며 특히 조광조는 『근사록』을 『소학』보다 더 중시하며 개혁정책의 이론적 기반으로 삼기도 하였다.

『소학』과 동시에 김인후가 학문의 시작으로 강조한 것은 『효경』이었다. 옥과현감 재직 시절 童蒙들의 교육을 위하여 시작한 『효경간오』의 간행이 마무리되자 붙인 발문에서 그는, “효란 百行의 근원이며 仁을 행하는 근본이다”고 하면서 『소학』과 『효경』을 제일 처음에 배우고 이어 『대학』 → 『논어』·『맹자』 → 『중용』 → 『육경』 순으로 학문을 하면 완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김인후가 평생 동안 중시하며 천 번이 넘게 읽은 책은 『대학』이었다. 그는 제자들에게 『대학』 한 권의 책 속에 體用이 구비되고 條理가 문란하지 않으니 이를 버리고서는 道에 이를 수가 없으며, 『대학』을 읽지 않고 다른 경서를 보고자 한다는 것은 터를 닦지 않고 먼저 집을 지어 한때의 겉모습만 아름답게 꾸미려는 것과 같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朱子大全』 가운데 주자가 경연에서 『대학』을 강론한 『朱子經筵講義』를 그대로 뽑아 책으로 만들기도 하였으며, 『大學講義跋』에서는 “평생 공부가 『대학』에 있다”는 주자의 말을 인용까지 하면서 『대학』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대학』의 강조는 기묘사림의 학문을 계승한 사람들이 그 한계성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다. 즉 이들은 기묘사화가 실패한 원인으로 먼저 至治를 포기한 국왕의 학문적인 문

제점을 들었다. 사림의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어떤 좋은 개혁도 왕의 의지가 없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왕의 학문인 聖學이 제대로 갖추어지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보고 성학, 즉 帝王學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전개하였으며 그 이론적 기반이 되었던 『대학』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던 것인데 김인후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것이다.

또한 명종대 사림은 기묘사림이 지치를 추진하는데 학문적 기반, 특히 이론적 기반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식하고 출사보다는 학문 연구에, 성리학의 실천적 측면보다는 이론적 측면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 결과 성리학적 세계관과 이기심성론을 본격적으로 다룬 글들이 서경덕과 李彦迪을 통해 나오고 이어 曹漢輔와 이언적의 無極太極論爭, 이황과 기대승의 사단칠정논쟁, 이이와 成渾의 사단칠정논쟁 등을 통해 사람들은 성리학 이론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켜 나갔다.

호남사림도 조선에서의 성리학의 이론적 심화과정에 크게 기여하였는데 김인후는 그 중심에 있었다. 인종이 죽자 그는 사직하고 귀향하여 학문 연구와 제자 양성에 힘썼는데 성리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天命圖」, 「周易觀象圖」, 「西銘事天圖」등을 저술하고 서경덕·정지운·이항·기대승·노수신 등과 학문 교류를 하며 서로 다른 견해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즉 서경덕의 「讀周易詩」를 읽고 그의 공부 방식이 下學을 소홀히 하고 頓悟로 이끌 우려가 있음을 걱정하여 「次花潭讀易詩韻」을 지어 비판하였으며 기대승과 「太極圖說」에 대해 토론

을 벌이던 이항⁴⁾에 대해서는 태극과 음양, 리와 기를 일물로 보는 理氣一物說이 그릇됨을 지적하였다.

또한 이황과 노수신 사이의 토론에도 참여하여 도심을 性·體로, 인심을 情·用으로 보는 노수신의 道心人心體用說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한편 기대승과는 四端·七情에 대해 의견을 주고 받았는데 뒤에 기대승이 이황과 四端七情論爭을 벌일 수 있었던 데에는 김인후의 견해에 힘입은 바 적지 않았다.

김인후의 사상은 기본적으로 주자성리학에 충실하였다. 理氣論에서는 리와 기가 불가분의 관계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리와 기를 같은 차원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데는 반대하고 리의 우위성을 인정하였다.

또한 그는 이 리를 인간의 일상생활과 인간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마땅한 법도, 즉 인륜도덕의 리로 보고 이를 實理 또는 至理라고 표현하였다. 天理의 節文으로서의 禮는 바로 이 객관적 실재인 리의 외면적 顯現이라 할 수 있다.

수양론에서는 敬을 강조하였다. 一身의 主宰가 되는 것은 마음이지만 능히 그로 하여금 주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경이라 하면서 김인후는 경을 수양론의 중심 개념으로 제시하였다. 대체로 일은 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리는 실상 마음에 갖추었는데 경은 그 마음을 보존하고 리를 밝히는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경은 聖學의 시작과 마침을 이루는 것으로 主一無適하고 整齊嚴肅하여 항상 上帝를 마주 대하듯이 하여

야 하며 이렇게 하면 本源을 함양하고 총명을 개발함이 이 한 글자에 있다고 보았다.

사단칠정론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한 자료가 남아 있지가 않지만 이항의 서신에서 언급한 내용 등을 볼 때 사단과 칠정 모두 理氣를 겸하고 善惡이 있다는 기대승과 같은 입장이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人心道心說에 대해서는 “성인의 이른바 인심과 도심은 모두 그 動處를 지적하여 말한 것이다” 하여 노수신이 “도심은 寂然不動하고 인심은 感而遂通이다” 하며 도심을 未發의 體로 보는 것에 반대하고 已發의 用으로 보았다.

김인후의 「천명도」는 정지운⁵⁾의 「천명도」를 보고나서 1549년에 작성한 것인데 이황의 「天命新圖」보다는 4년이 앞섰다. 정지운이 性を 理로 파악한 데 반해 김인후는 성을 中으로 파악한 것이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중용』의 정신에 충실하여 善의 실현을 性の 구현이 아니라 欲情의 中節·中和에 의하여 이루고자 한 것도 정지운·이황과는 다른 점이었다.

이상에서 볼 때 김인후의 사상은 조선에서의 성리학의 이론적 심화과정과 궤를 같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호남사상계가 정통 주자성리학과 가까운 송순계열과 주자성리학과 어느 정도 거리가 있었던 서경덕계열로 재편될 때 송순계열에 속하였으며 그 속에서도 시간이 흐를수록 이황보다는 이이의 견해와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 말하자면 호남성리학이 전체 조선사상계의 성리학에 대한 이해 수준을 한 단계 높

4) 김인후와 이항은 시돈간이다. 즉 김인후의 장남인 金從龍이 이항의 사위이다.

5) 김인후와 정지운은 같이 김안국의 문인이다.

이고 이이학파의 학설이 정립되는데 선구적인 역할을 하였는데 그 한 가운데 김인후가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상사적 위치로 인해 김인후는 1796년(정조 20) 호남사람으로는 유일하게 문묘에 종사되었으며 송시열과 정조로부터 “도학과 절의와 문장을 다 갖춘 사람은 오직 김인후 한 사람뿐이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정조는 여기에 ‘동방의 周子’라는 평가를 하나 더 보태기도 하였다.

2. 김인후와 仁宗 임금의 交契

1543년(중종 38) 김인후는 홍문관 박사 겸 세자시강원 說書에 임명되어 당시 세자였던 仁宗의 교육을 책임지게 되었다. 9세 때 奇遵이 고향에 내려왔다가 김인후를 보고 칭찬하며 “참으로 기특한 아이다. 마땅히 우리 세자의 신하가 되겠다”고 말한 것이 실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인종은 중종의 맏아들로 어머니는 章敬王后 尹氏였다. 어릴 때부터 재주와 지혜가 빼어나 3세에 능히 글의 뜻을 알았으며 6세에 세자로 책봉되었다. 성품이 매우 고요하고 욕심이 적으며 인자하고 공손하며 효성과 우애가 있었다. 또한 학문에 부지런하고 실천이 독실하였으므로 동궁에 있는 지 25년 동안에 어진 덕이 널리 알려졌다.

인종은 김인후의 학문과 도덕이 훌륭함을 깊이 이해하고 성심으로 존경하여 召對가 잦았으며 김인후 또한 인종의 덕이 뛰어나서 요순 삼대의 정치를 기약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지성껏 啓導해서 契遇가 날로 두터웠다. 따라서 김인후가

入直해 있을 때는 인종이 가끔 몸소 나와서 조용히 글을 물어보고 이속해서야 파하기도 하였다.

이때 인종은 김인후에게 『주자대전』 한 질을 하사하였다. 『주자대전』은 주자의 저술을 모두 모은 문집으로 『朱子語類』와 함께 주희의 학문을 연구하는데 필수적인 것이었다. 이전의 성리학 연구는 『性理大全』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이 책은 주희의 학설과 다른 학설들도 포함되어 있어 주자성리학의 정수를 이해하는 데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았다.

조선에서 『주자대전』은 중국으로부터 들어와 1543년 처음 간행되었다. 주자의 전체 사상체계를 본격적으로 접할 수 있는 이 책의 간행은 조선학계에서 성리학 연구가 본 궤도에 오르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는데 김인후는 이 책이 간행되자마자 하사받은 것이다.

또한 인종은 본래 예술에 소질이 있었으나 남에게 나타내 보인 적이 없었는데 직접 그린 墨竹圖 한 폭을 하사하고 화폭에 題詩를 하도록 하니 김인후는 다음과 같이 詩를 지어 화폭에 담았다.

뿌리와 가지, 마디와 잎새가 모두 다 정미하니
바위를 친구 삼은 뜻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비로소 성스런 우리 임금 조화를 짝하심을
깨닫노니

천지와 함께 뭉쳐 어김이 없으십니다.⁶⁾

根枝節葉盡精微 / 石友精神在範圍
始覺聖神侔造化 / 一團天地不能違

6) 『河西全集』附錄 권3 「年譜」

대나무와 바위를 군신으로 상징해 신하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표시한 인종의 그림에 김인후는 성군의 치세가 올 것이라고 답하였던 것이다.

그해 6월 홍문관 부수찬 겸 경연검토관에 임명된 김인후는 東宮殿 방화사건을 계기로 筭子를 올려, 예로부터 정치를 잘하는 군주는 어진 인재를 가까이 하고 선비의 풍습을 바로잡는 일을 근본으로 삼았다며 심정·이항 등을 소인으로 지목하고 조광조를 비롯한 기묘사화 被禍者들의 신원을 극력 주장하였다. 아울러 기묘사화 이후 유자들이 『소학』과 향약을 읽지 않아 교화가 행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또한 김인후는 「全羅道歌謠」, 「江原道歌謠」, 「黃海道歌謠」 등 各道歌謠類를 적지 않게 제작하여 각도에 부임하는 관찰사 등 지방관들에게 주었는데 이는 이들 지방관들이 다스릴 각 도의 이상적인 모습을 夏·周代의 고사에 빗대어 노래한 것으로 이상국가와 향촌교화에 대한 김인후의 자신의 바램을 표출한 것이기도 하였다.⁷⁾ 이해 겨울 김인후는 부모 봉양을 이유로 물려나 옥과현감에 임명되었다.

1544년 중종이 죽고 인종이 즉위하자 이듬해 김인후는 명나라 사신을 접대하는 제술관으로 부름을 받고 조정에 나아갔다. 이때 大尹과 小尹의 정치적 대립이 심해지고 인종의 건강이 악화되자 김인후는 본인이 의원의 처방에 동참하겠다고 하고 당시 대비전에 기거하고 있던 인종의 거처를 옮길 것을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다시 임소로 돌아갔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인종이 죽자 김인후는

병을 핑계로 향리로 돌아왔다. 그는 한동안 인종의 죽음으로 인한 충격으로 心疾을 얻고 시와 술로 방황하기도 하고 이후 조정에서 계속 관직을 내렸으나 나아가지 않고 51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15년 동안 인종에 대한 의리를 지키며 학문 연구와 후학 교육에 힘썼다.

3. 김인후의 문인과 호남 학맥

호남사람은 기본적으로 호남지방, 즉 전라도를 기반으로 중종대에 성립되어 성장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대체로 조선 건국과 세조의 쿠데타, 연산군의 사화 등의 정치적 변동 속에서 절의를 고집했거나 정쟁에 연루됨으로써 받았던 정치적 박해를 피해 전라도로 이주해온 사대부 가문의 후예들로 연산군대에 서서히 등장하여 중종반정 이후 본격적으로 흥기하였다.

호남지역의 학맥 형성은 이러한 호남사람의 형성과정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며 전개되었다. 16세기 전반 호남사람의 인맥과 학맥은 크게 김굉필 계열, 최부계열, 송흠계열, 박상계열, 이항계열, 김안국계열 등 여섯 계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명종대에 이르면 인맥·학맥에 학문적 성격이 더해지면서 이 여섯 계열이 송순계열과 서경덕계열로 재편되었는데 대체로 김굉필·송흠·박상·이항·김안국계열이 송순계열로 이어지고 최부계열이 서경덕계열에 속하였다.

서경덕계열 인물들의 사상을 보면 대체로 정통 주자성리학과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으며 오히려 북송의 邵雍·張載와 명의 羅欽順의 학문, 양명

7) 안봉, 1998 「金麟厚의 文學에 나타난 經世濟民의 考察」 『人文科學研究』 20 조선대 인문학연구소

학 등을 계승한 점이 없지 않았다. 반면 송순계열 인물의 사상은 서로 간에 학설의 차이가 없지 않았지만 크게 보면 정통 주자성리학에 가까웠다.

송순계열에 속하는 김인후는 전북지방에 기반을 둔 이항계열을 제외한 김굉필·송흠·박상·김안국계열과 모두 맥을 닿고 있다. 이는 김인후가 이전의 호남유학의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위치에 있었음을 잘 보여준다.

특히 송순계열 인물의 사상이 대체로 정통 주자성리학에 가까웠던 것을 생각한다면 김인후는 호남지역 정통 주자성리학의 흐름을 계승하고 이를 호남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나름대로 발전시켜 나갔다고 볼 수 있다.

김인후의 학문과 사상은 그의 문인들에 의해 계승되었는데 卞成溫·卞成振·梁子澂·趙希文·奇孝諫·鄭澈·邊以中·吳希吉·盧適·申覺·南彦紀·尹箕·徐台壽·徐浩·安璫·金從虎 등이 있다.

문인 가운데 도학에 가장 뛰어났던 변성온은 김인후가 을사사화 이후 낙향하여 학문 연구와 제자 교육에 힘쓰자 제일 먼저 나아가 수학하였다. 김인후가 『소학』을 주니 변성온은 성인의 모범이 이 책에 있다면서 언행을 모두 『소학』에 근거하여 하였다. 성격이 온후하고 행동이 실수가 없어 동문인 기효간·양자징·조희문·이지남·윤기·남언기 등으로부터도 중망이 있었다. 그러나 세상에 나아가지 않고 壺巖에 은거하며 학문에 힘썼다. 1555년 이황을 배알하였으며 1560년 김인후가 죽자 역시 이황을 찾아 뵈고 김인후의 武陵九谷 시를 낭송하기도 하였

다. 기대승·성혼·박순 등과 교류하였다.

당시 정여립이 이름을 날려 사대부들이 모두 다투어 몰려 들었으나 만나보지 않았으며 정여립이 만나려고 청하였으나 거절하였다. 1556년 일어난 안서순사건 때는 안서순이 상소문을 옮겨 적을 때 도와주는 등 훈척정치에 대한 비판에도 적극적이었다. 김인후가 돌아가자 변이중에게 청하여 祠宇를 창건하고 양자징에게 家狀을 짓게 하는 등 스승의 현창사업에 공이 컸다. 변성진은 변성온의 동생으로 형과 함께 김인후 문하에서 수학하였고 이황 문하에도 왕래하면서 경전에 대해 강론하였다. 명종 말에 사특함과 올바름을 구분하여 이치를 밝히기를 주장하는 상소를 올렸으며 선조대에도 天命과 人心의 오고 가는 나누임과 군자·소인의 진퇴의 기미, 궁중 일의 엄하지 않음과 戚里들의 진중하지 못함을 지적하는 상소를 올려 선조가 가상하게 여겨 답하고 참봉으로 임명할 것을 명하였으나 병으로 사양하였다.

정여립이 만나보려고 청하였으나 형과 마찬가지로 거절하였다. 평소 행동하는데 있어 오로지 『소학』과 『주자가례』를 법으로 삼았으며 역학에 특히 능하였다. 『家禮解疑』와 이황·김인후 양선생과 왕복한 서한이 있었으나 전쟁으로 인해 모두 불타버렸다.

양자징은 소쇄원 주인 梁山甫의 아들이다. 어렸을 때부터 『소학』 공부를 철저히 하여 실천하였으며 열 대여섯이 될 즈음 모든 경서와 사서를 깊이 있게 이해하기에 이르렀다. 김인후의 딸과 결혼하였으며 그의 제자가 되었다.⁸⁾ 이황

8) 김인후의 첫째 사위는 조희문, 둘째 사위는 양자징이고 셋째 사위는 유희춘의 아들인 柳景濂이다.

문하에서 수학하였고 이이와 성혼에게서 강의
를 받았다. 선조대 정종영·박순 등이 천거하여
관직에 나아가 의령고 직장과 거창현감·석성
현감 등을 역임하였다. 아들 양천정과 양천회는
기축옥사의 고변자였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아들 양천운을 시켜 약간의 금전과 식량을 김천
일과 고경명부대에 실어 보내기도 하였다.

조희문 역시 김인후가 옥과현감으로 있을 때
사위로 삼아 그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성품이
순후하고 우직하여 꾸밈이 없었다. 1553년 문
과에 합격하여 병조좌랑, 홍문관 수찬 등을 역
임하였으며 관직이 부사에 이르렀다. 수령이 될
때 이량에게 뇌물을 주어 물의를 일으키기도 하
였다. 스승의 유고 수집을 주도하여 8년 만에
문집을 간행하였다.

기효간은 김인후와 이항 문하에서 수학하였
으며 당숙인 기대승에게서도 학문을 배웠다. 부
친이 돌아가자 3年喪을 극진하게 지내 향리 사
람들이 탄복하기도 하였다. 일생동안 관직에 나
아가지 않고 학문 연구와 제자 양성에 힘썼다.
송시열의 문인인 기정익이 고손이다. 임진왜란
때는 장성 南門倡義에 참여하여 주도적으로 활
약하여 宣武原從功臣에 봉해졌다.

歌辭文學으로 널리 알려진 정철의 집안은 본
래 서울을 기반하고 있었으나 을사사화를 계기
로 몰락하고 정철이 16세 때인 1551년 전라도
창평으로 내려와 자리 잡았다. 처가 신비복위소
를 올렸던 柳沃의 손녀이다. 무등산 주변 俛仰
亭詩壇과 星山詩壇을 중심으로 문학활동을 활
발히 하면서 김인후와 송순·임억령·양응정·
기대승 등을 師事하였으며 박순·김성원·송익
필·성혼·이이·백광훈·고경명·최경창 등
과 사귀면서 송순계열을 계승·발전시켜 나갔

다. 1562년 문과에 장원 급제한 뒤 관직이 좌의
정에 이르렀으나 동서봉당의 와중에서 서인의
중심 인물로 활동하여 잦은 탄핵과 파직·유배
를 당하기도 하였다.

변이중은 김인후와 이이·성혼 문하에서 수
학하였으며 1573년 문과에 합격하여 풍기군수
등을 역임하였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調度使
와 督運使로 활약하였으며 신병기인 火車 300
량을 손수 제작하여 그 가운데 40량을 경기도
순찰사 권율에게 주어 행주성싸움에서 승리하
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1605년 고향으로 돌아
와 학문 연구에 전념하고 『鄉憲』 10여조목을 만
드는 등 향촌 교화에 힘썼다. 『望菴集』과 『家禮
考證』 등의 저술을 남기고 扈聖原從功臣·선무
원종공신에 봉해졌다. 아들 邊慶胤은 성혼과 김
장생에게서 학문을 배웠다.

오희길은 김인후 문인인 妻從祖叔父 기효간
에게서 학문을 배웠으며 오겸이 종조부이다.
임진왜란 때는 경기전참봉으로 태조 영정과 실
록을 내장산으로 안전하게 옮겨 扈聖·宣武二
等功臣에 책봉되기도 하였다. 광해군정권 때
북인과 대립하다 거제도에서 귀양 가 그곳에서
죽었다.

유배생활 중에 저술한 『道東淵源錄』은 기자
이후 우리나라 역대 명현 99명의 行狀과 遺文을
여러 문헌에서 발췌하여 수록하고 간간히 자신
의 견해를 붙여 도학의 줄거리를 세운 것이다.
이 책에서 그는 조선 도통의 연원을 기자 → 정
몽주 → 길재 → 김굉필 → 정여창 → 조광조 →
이언적 → 이항 → 김인후 → 성혼 → 이이로 보
았다. 道統의 연원을 기자까지 올리고 호남 출
신이면서 자신의 스승인 김인후가 들어가고 이
이를 집대성자로 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다른

『연원록』보다 호남 출신 유학자들을 상대적으로 많이 집어넣고 있어 서인계 호남사림의 시각을 반영했다고 할 수 있다.

남언기는 南彦經의 동생으로 이항과 김인후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이항을 찾아뵙고 「題南季憲箴銘後」라는 글을 받았으며 허엽과 인심도심설에 대해 편지를 주고받기도 하였다. 이조판서 李鐸이 격식에 구애받지 않고 관직에 채용하려고 하였으나 사양하였다.

서태수는 김인후 문하에서 수학하였으며 뒤에 동서 갈등이 심해지고 이이가 동인의 공격을 받자 유생들을 데리고 상소를 올려 적극 옹호하였다. 필암서원 春秋 釋菜 축문을 쓰기도 하였다. 김종호는 김인후의 아들이다.

김인후 문인들의 활동은 몇 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다. 먼저 김인후뿐만 아니라 다른 스승에게도 함께 수학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변성온·변성진·양자징은 이항 문하에서 수학하였으며 기효간·남언기는 이항에게 배웠다. 이항은 김인후와 성균관에서 같이 공부하고 뒤에 문학적 교류도 활발히 했던 관계이며 이항은 학문적으로는 차이가 있었지만 사돈간이었다. 16세기 후반까지도 학파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 활발한 학문적 교류를 했던 시기였음을 보여준다.

두 번째로 16세기 후반 이후에는 문인들 대부분이 이이·성혼 계통, 특히 이이학파와 맥을 닿고 있다는 점이다. 양자징과 변이중은 이이·성혼에게 직접 학문을 배웠으며 기효간과 오희길 집안은 뒤에 이이학파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김인후 문인이면서 이항 문인이었던 인물들도 16세기 후반까지는 이항학풍을 유지하다 16세기 말 이후부터는 정치적으로 서인이 되면서

이항과의 학문적 관계가 점차 멀어져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 번째로 김인후에 대한 현양사업을 통해 조선 후기까지도 그 학문적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인후의 지역적 배경인 장성 지역은 김인후집안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족 집안들이 동서분당 이후 서인·노론의 당색을 띠었다. 김인후문인들은 이들과 협력하여 필암서원을 건립하고 사액을 받고 문집을 간행하고 문묘에 배향시킴으로써 김인후를 호남지역의 학문적 종주로써 위치 매김하려고 노력했던 것이다.

그러나 호남지역에서의 河西學의 위상은 영남지역의 退溪學이나 南冥學, 기호지역의 栗谷學의 위상보다는 크지 않았다. 이는 호남성리학이 조선 후기까지도 서인계 사림의 학문뿐만 아니라 남인계와 소론계 사림의 학문도 지속되는 등 사상적 개방성과 다양성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호남이 실학의 선구적인 지역의 하나였다는 사실도 이를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 문헌〉

- 李乙浩 외, 1993 『河西 金麟厚의 道學과 文學思想』 - 광주광역시·향토문화개발협의회
- 崔根德 외, 1994 『河西 金麟厚의 思想과 文學 1』 하서기념회
- 琴章泰 외, 1994 『河西 金麟厚의 思想과 文學 2』 하서기념회
- 백승증, 2003 『대숲에 앉아 천명도를 그리네』 돌베개
- 金玉淵 외, 1994 『河西 金麟厚의 思想과 文學 3』 하서학술재단
- 이종범, 2006 『사람열전 1-소쇄원의 바람소리-』 아침아침
- 고영진, 2007 『호남 사림의 학맥과 사상』 해안
- 김정수, 2009 『전라도 사람들 6-김인후-』 장문산
- 한영우, 2010 『한국 산비 지성사』 지식산업사

천년학부(千年學府) 악록(岳麓)서원

－ 中國 湖南大學 岳麓書院 資料 －

강대익 (장성군청 문화관광과)

1) 악록서원의 건립

승려 지선(智璿)이 지금 악록서원의 땅에 처음으로 배움터를 연 것은 오대(五代) 때 (958년 전후)이다. 천 년이 넘는 시간이다. ‘천년학부(千年學府)’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온 것이니 빈말이 아니다. 976년 담주 태수 주동(周洞)이 확장하여 서원을 만들고, 그 뒤 1001년 담주 태수 이윤칙(李允則)이 진종(眞宗) 황제에게 청하여 많은 책을 하사받는다. 이후 악록서원은 총 7차에 걸쳐 황제로부터 편액과 책, 땅, 돈을 받으면서 그 명성을 더해간다.

1015년 악록서원 원장이던 주식(周式)의 덕행이 널리 알려져 진종황제는 서울로 불러 국자감주부(國子監主簿)의 자리를 내렸으나 끝내 돌아갈 것을 청해 이를 받아들이고서 ‘악록서원’이라 사액하였다. 이후 악록서원의 명성은 천하에 퍼져 ‘북송 4대서원’의 기반을 닦는다.

1167년 복건(福建)의 주희(朱熹)(1130~1200)는 악록서원 원장으로 있던 장식(張栻)(1133~1180)을 한 달 가까이 걸려 찾아온다. 주희는 이곳에 두 달여 머물면서 이른바 ‘주장회강(朱張會

講)’이 이뤄진다. 여기에서 주희의 민학(閩學)(道南學)과 장식의 호상학(湖湘學)이 만나게 된다. 정이(程頤)(1033~1107)에게서 갈라진 성리학의 두 물줄기가 그 원류를 따라 합해지게 된 것이다. 뒷날 이를 기려 청(淸) 건륭제(乾隆帝)는 ‘도남정맥(道南正脈)’이란 네 글자를 악록서원에다 친히 써서 하사한다. 이로써 악록서원의 명성은 하늘을 찌르게 되고 지금도 이 편액은 강당에 금빛을 내며 자랑처럼 버티어 그 기억을 전하고 있다.

주희는 장식이 죽은 뒤인 1194년 형호남로전운사지담주(行湖南路轉運使知潭州)의 벼슬을 받아 다시 담주 땅을 밟으며 강학을 통해 자신의 성리학을 널리 전파한다. 그 뒤 주희의 학을 이은 진덕수(眞德秀)(1178~1235)와 위료옹(魏了翁)(1178~1237)이 담주 지사로 와 강학하면서 주자학을 전파하는가 하면, 진부량(陳傅良)(1137~1203)은 자신의 사공학(事功學)을 강학을 통해 퍼트리기도 한다. 1314년 원의 오징(吳澄)(1249~1333)도 악록서원을 들러 그의 흔적을 남기고 있다.

양명학도 악록서원에 발을 딛는다. 1507년 왕

수인(1472~1528)이 태감(太監) 유근(劉瑾)을 비판하다 귀주(貴州) 용장(龍場)의 역승(驛丞)으로 내쫓겨가는 길에 악록서원에 들리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도 이곳에 들러 자신의 '심즉리설(心卽理說)'을 가르친다. 이 심즉리설은 이른바 '용장에서서의 깨달음'인 것이다. 양명학이 맨 처음 설파된 곳, 바로 양명학의 '초전법륜(初轉法輪)'이 행해진 곳이라고나 할까. 뒷날 양명의 정통 계승자임을 자처하는 나홍선(羅洪先)(1504~1564)이 또 이곳에 머무르면서 스승의 학을 전파하여 한때 양명학이 크게 일어나기도 한다. 마침내 명말·청초에 이르러 악록서원의 이러한 풍부한 사상적 전통을 자양분으로 삼아 왕부지(王夫之)(1619~1692)와 같은 위대한 철학자가 탄생한다.

악록서원의 위치가 실로 돋보이는 것은 비단 이러한 전통 때문만이 아니다. 오히려 악록서원은 뒤로 오면서 그 빛과 명성을 더하게 된다. 일찍이 서양에 관심을 기울여 『해국도지(海國圖志)』를 쓴 위원(魏源)(1794~1857), 양무운동(洋務運動)을 주도한 중국번(曾國藩)(1811~1872)과 좌종당(左宗棠)(1812~1885), 변법유신(變法維新)의 선봉에 섰던 담사동(譚嗣同)(1865~1898)과 양계초(梁啟超)(1873~1929)(時務學堂을 세움, 뒷날 악록서원에 병합), 오늘날 사회주의 중국을 만들어간 채화삼(蔡和森)(1882~1931)과 모택동(毛澤東)(1893~1976)이 모두 악록서원을 거쳐간다.

1903년(광서29) 악록서원은 청말 유명한 경학자 왕선겸(王先謙)(1842~1917)을 마지막 원장으로 전국적인 근대 교육제도 개혁에 따라 호남고등학당(湖南高等學堂)으로 개편되며, 호남고등사범학교와 호남공립공업전문학교로 바뀌

었다가 1926년 성립 호남대학(湖南大學)으로, 다시 1937년 국립 호남대학이 된다. 이에 악록서원은 지금 호남대학 안에 자리잡고 있다. 그리고 악록서원은 현재 독립연구소로 인정받아 독자적으로 석사생을 배출하고 있다.

악록서원은 천여년의 시간 동안 크게 7차에 걸친 병화를 입고 그때마다 다시 지어진다. 지금 건물은 대부분 오삼계(吳三桂)등이 일으킨 '삼번(三藩)의 난' 이후 청 강희제(康熙帝)때 지어진 것으로 이후 2차에 걸친 병화를 거치면서 크게 수리한 것이다. 서원 건물은 맨 앞 두문(頭門)으로부터 중앙 일직선으로 혁희대(赫曦臺), 대문(大門), 이문(二門), 강당(講堂), 어서루(御書樓)순으로 배치되어 있다. 악록산 기슭에 지어졌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높아진다. 그리고 정면에서 왼쪽과 오른쪽에 양 건물군이 있는데 모두 학생들의 숙소로 쓰였던 곳으로, 1903년 호남고등학당으로 개편되면서 크게 고쳐진 뒤 각각 교학재(教學齋)와 반학재(半學齋)로 불려지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좌묘우학(左廟右學)'(중심건물인 어서각을 기준)의 구조에 따라 오른쪽 위, 어서각 옆에 염계사(濂溪祠), 송도사(崇道祠) 등의 사묘(祠廟) 건축군이 있으며, 다시 그 오른쪽에는 문묘(文廟)가 있다. 그리고 중앙에서 왼쪽, 그러니까 교학재와 어서루 사이에는 비랑(碑廊)이 만들어져 있고 그밖으로 정자와 원림(園林)등이 조성되어 있다.

2) 악록서원 소개

(1) 천년학부

악록서원을 들어서다 보면 맨 앞에 버티고 서 있는 것이 '천년학부(千年學府)'라는 현판이다.

지난 번 강서의 백록동서원을 들렸을 때 ‘천년 학부’라는 현판 앞에서 느꼈던 역사적 위압감, 하지만 하지만 조금도 싫지 않았던 그 느낌의 기억이 다시금 생생히 떠오른다. 오대(五代)때 처음 배움의 터를 열고, 북송 때 이미 ‘천하(天下)사대서원(四大書院)’으로 일컬어졌다 하니 그동안 천 년이란 세월이 흘렀나 보다. 이 ‘천년 학부’ 네 글자는 당나라 때 이곳 출신의 저명한 서법가(書法家) 구양순(歐陽詢)(577~641)의 수적(手迹)을 집자(集字)한 것이다. 두문이 세워지고 이 현판이 걸린 것은 근년의 일이다.

두문을 들어서다 보면 양 기둥에 걸려 있는 대련(對聯)이 다시 방문객의 눈길을 끈다. “천여 년 초나라 땅 인재는 바로 이 악록서원에서 낳고 길러졌으며, 근세기 이곳에서 길러진 상학의 영광은 태양과 그 빛을 다룰 만하다.”

그렇다. 악록서원은 그냥 헛되이 천 년이란 시간을 흘려온 것이 아니다. 수많은 초 땅의 인재를 낳고 길러 천하의 인물로 만들어낸 곳이며, 그 번성함은 뒤로 갈수록 더하였다. 이제 ‘천하 제일 서원’이라는 명예를 악록서원에다 돌려주는게 마땅하지 않을까?

(2) 혁희대(赫曦臺)

두문을 들어서면 바로 혁희대(赫曦臺)가 나온다. 혁희대는 원래 이곳에 있지 않았고 악록산 꼭대기 부근에 있었다. 여기에 처음 대를 세우는 장식(張式)이고, ‘혁희’라 이름 붙인 이는 주희(朱熹)이다. 악록서원 원장으로 있던 장식을 근 한달이나 걸려 찾아온 주희는 이곳에 머무르는 동안 이른 아침이면 항상 그와 함께 낚시한 뒤 악록산 꼭대기에 올라 일출을 보았다고 전하니, 일출 때 눈앞에 펼쳐진 산과 강, 인과의

모습들이 아침마다 햇빛에 씻긴 듯 깨끗하고 생기발랄하여 붙인 이름이리라.

주희는 두달여 이곳에 머물면서 악록서원과 상강(湘江) 건너 맞은편에 있던 성남서원(城南書院)을 오가며 장식과 함께 성리설을 토론하고 강의한다.

이것이 이른바 역사적인 ‘주장회강(朱張會講)’이며 이들의 강의를 들으러 학생들이 떼지어 모여든 상황을 역사는 “도림삼백중(道林三百衆), 악록일천도(嶽麓一千徒)”란 말로 전하고 있다. 양시(楊時)와 나종언(羅宗彦), 이동(李侗)을 통해 이정(二程)의 성리학을 계승한 주희와 사랑좌(謝良佐)와 호안국(胡安國), 호굉(胡宏)을 통해 이정의 성리학을 계승한 장식은 이때 큰 만남을 가진다. 흔히 이를 가지고 주희의 학설을 중화(中和) 구설(舊說)과 신설(新說)로 나누는데, 주희가 처음에는 장식의 견해에 동의하여 희노애락과 같은 감정이 일어나기 전에는 달리 공부할 길이 없고, ‘선찰식(先察識), 후존양(後存養)’ 할 것을 따랐다가 뒷날 이를 버리고 스승 이동에게서 내려온 희노애락이 일어나기 전의 공부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이후에도 두 사람간의 우정과 예의는 변함이 없었다. 장식의 제의에 따라 두 사람은 남악 형산을 유람한 뒤 헤어지는데, 두 달여의 시간이 오히려 모자랄 정도였다. 이때 그들은 149수의 시를 지어 장식이 서를 쓰고 주희가 기(記)를 달아 『남악창수집(南嶽唱酬集)』으로 남긴다.

지금의 자리에 대를 세운 이는 악록서원 원장으로 있던 나전(羅典)이며(1790), 1821년 원장 구양후균(歐陽厚均)이 주희가 쓴 혁희대비(赫曦臺碑)의 원적(原迹)을 발견한 뒤 이 대를 혁희대

로 개명하였다. 지금 혁희대 위에는 지난 기억을 되새기게 하는 3수의 시가 큰 액자 속에 담긴 채 서 있다. 첫째 수가 주희와 장식이 화답하며 지은 「악록산 혁희대에 올라」 연구(聯句)이고, 둘째 수는 왕수인의 「혁희대를 바라보며」이며, 셋째 수는 모택동의 「벗 주세조에게 화답함」이다.

(3) 악록서원 대문

혁희대를 돌아돌면 ‘악록서원(嶽麓書院)’이라 새겨진 현판이 걸려 있는 대문이 나온다. 이 대문은 송나라 때 처음 지어졌으며, 지금의 것은 1509년에 세워진 것이다. 대문 위에 걸려 있는 편액의 ‘악록서원’ 네 글자는 원래 송 진종(眞宗)의 어서(御書)였다.

진종황제는 당시 주식(周式)이란 이가 도덕행의로 명성이 자자하자 불러들여(1015) 국자감주부(國子監主簿)의 자리를 내리고 서울에 머물 것을 명하였으나 끝내 그가 머물고 있던 서원으로 되돌아갈 것을 고집하자 이를 윤희하고서 ‘악록서원’ 네 글자를 친히 써서 사액하였다. 원래의 이 편액은 항일전쟁 중 일본 비행기의 폭격에 의해 불타버렸고, 송 진종의 수적(手迹)에 따라 명나라 때 석각한 편액이 전해 오던 것을 1984년 복제하여 이곳에다 다시 걸었다.

대문 양 기둥에는 “초나라 땅 인재들이 이곳에서 번성하리라”라는 내용의 대련이 걸려 있다. 악록서원의 사람 자랑은 그치질 않는다. 그래도 아무런 흥허물이 되지 않을지니! 이 대련은 원장 원명요(袁名曜)와 학생 장중계(張中階)가 지은 것이다. 청 가경(嘉慶) 연간에 서원을 크게 수리한 후 학생들이 원장 원명요에게 대

련을 지을 것을 요청하자, 그가 ‘유초유재(維楚有材)’를 먼저 말하고 학생 중 장중계가 ‘우사위성(于斯爲盛)’이라 응대하여 이뤄진 것이다. ‘유초유재’는 『좌전』, 「양공 26년」의 “수초유재(雖楚有材), 진실용지(晉實用之)”에서 따온 것이고, ‘우사위성’은 『논어』, 「태백」의 “당우지제(唐虞之際), 어사위성(於斯爲盛)”에서 따온 것이다.

(4) 이문(二門)

대문 뒤에 다시 이문(二門)이 이어진다. 대문 뒤편에는 원래 예전(禮殿)이 있었으나, 1527년 문묘를 확장해 지으면서 문을 세웠다. 항일전쟁 때 일본 비행기의 폭격에 의해 사라진것을 일본인 학자 아즈마 시게지가 제공한 사진에 따라 1984년 중건하였다. 문 정면에는 ‘명산단석(名山壇席)’이란 편액이 걸려 있고, 양기둥에는 “납우대록(納于大麓), 장지명산(藏之名山)”이란 대련이 걸려있다. 그리고 이문 뒤편에는 ‘소상괴시(瀟湘槐市)’라는 편액이 걸려 있다. ‘소상’은 호남땅을 가리키고 ‘괴시’는 한나라 때 독서인들이 모이던 장소이고 보면, 악록서원은 곧 호남지방 학자와 선비들이 모이는 장소라는 뜻이 되겠다.

(5) 강당

이문을 지나면 탁 트인 공간이 나오면서 정면에 ‘실사구시(實事求是)’라는 편액을 내건 건물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강당이다. 서원 한 가운데 자리잡고 있는 이 건물은 강의와 큰 행사가 치러지던 가장 중요한 곳이다. 이 건물은 오대 시기(약 958 전후) 지선(智璿) 등 두 승려가 맨 처음 지은 것을 976년 담주(潭州) 태수(太守) 주

동(朱洞)이 증축하였으며, 당시에는 ‘성덕당(成德堂)’이라 불리다가 뒤에 ‘정일당(靜一堂)’ 혹은 ‘충효렴절당(忠孝廉節堂)’으로 불리었다. 기록에 의하면 8차에 걸쳐 다시 지어지고 30여 차에 걸쳐 수리를 했다고 한다. 지금 건물은 1687년(淸康熙26) 순무(巡撫) 정사공(丁思孔)이 증건한 것이다.

강당에는 세 개의 편액이 걸려 있다. 맨 앞의 것이 ‘실사구시(實事求是)’이고, 이어 ‘학달성천(學達性天)’과 ‘도남정맥(道南正脈)’ 순으로 걸려 있다. ‘실사구시’는 민국 초 호남공업전문학교 교장 빈보정이 지은 것인데, 1917년 호남공업전문학교가 악록서원에 귀속되면서 편액이 이곳에 걸리게 되었다. ‘실사구시’라는 말은 『한서』, 「하간현왕유덕전(河間獻王劉德傳)」에 있는 “수학호고(修學好古), 실사구시(實事求是)”에 연원을 두고 있지만 호남 지방 학문의 특성과는 무관하지 않은 듯하며, 특히 근대 중국의 교육지표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이렇게 악록서원에 연원을 두고 있는 ‘실사구시’라는 교육지표는 모택동과 덩소평을 거치면서 지금은 온 중국의 학교를 뒤덮고 있다. 모택동도 젊은 시절 한때 이 뜻을 거닐었으리라 생각하며 다시금 그 편액을 쳐다보니 이미 조금 전 바라본 그것이 아니다

‘학달성천’과 ‘도남정맥’ 편액은 우선 보아도 예사롭지 않다. 온통 금빛이다. 악록서원의 영광을 말해 주는 듯하다. 먼저 ‘학달성천’ 편액은 1687년 청나라의 강희제(康熙帝)가 성리학에 대한 존송을 나타내기 위하여 악록서원과 백록동서원, 그리고 성리학 창시자의 사당에다 몸소 써서 하사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도 금빛을 띠고 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하늘의

이치를 깨닫고 체현하여 천일합일의 경지에 이르는 데에 배움의 목표가 있음을 말해주는 ‘학달성천’이란 말 속에는 성리철학의 핵심이 응축되어 있다. 원래 편액은 전란 중에 없어져 버렸고, 지금의 것은 1984년 강희제의 수적 가운데 집자하여 새로 만든 것이다.

1743년 청의 건륭제(乾隆帝)는 다시 악록서원에다 성리학을 전한 공적을 기려 ‘도남정맥’이라는 편액을 내린다. ‘도남’이란 말은 북송 시기 유명한 성리학자 정이(程頤)가 자신의 고족(高足) 제자중 한 사람인 양시(楊時)가 공부를 마친 뒤 고향인 남쪽으로 돌아가게 되자 “나의 도가 남쪽으로 가는구나”라고 한 데서 유래한다. 그런데 양시의 성리학은 나중언(羅從彦)과 이동(李侗)을 거쳐 북건의 주희에게 전해져 성리학을 집대성하기에 이른다. 이를 흔히 민학(閩學) 혹은 도남학(道南學)이라 부른다. 한편 정이의 또 한 명의 고족 제자인 사랑좌(謝良佐)는 스승의 학을 호남 형산(衡山)에 사는 호안국(胡安國)에 전하며, 이는 다시 그의 아들 호굉을 거쳐 장식에게 이른다. 흔히 이를 호상학(湖湘學)이라 부른다. 그렇다면 호상학의 정맥이 흐르는 이 악록서원에다 왜 ‘도남정맥’이라 사액했을까? 주희가 두 차례 다녀 가고, 그 뒤 주자학이 크게 번성한 때문일까? 아무래도 장식의 호상학에다 ‘도남정맥’이라는 명예를 준 것 같지는 않다. 지금의 편액은 원래 것이다. 문화대혁명 때 홍위병들이 이 편액을 마구 부수는 것을 본 어느 노인이 가져다 숨겨 놓았다가 뒤에 되돌려준 것이라 한다. 면면히 이어져 온 도는 쉽사리 끊어지지 않는 모양이다.

강당 모습은 우리나라 서원과 다르다. 중국

서원은 대부분 벽돌로 지어졌기 때문에 마루가 없다. 그래서 우리의 서원 같으면 나무로 된 넓은 마루가 있을 법한데 이곳은 그렇지 않다. 우리 눈으로 보자면 좀더 ‘현대적’이다. 벽돌로 지어진 강당 가운데 조금 높게 강단이 마련되어 있고, 강단 뒷벽에는 「녹산전도(鹿山全圖)」가 석각되어 있다. 그 속에는 악록서원과 뒤로 악록산, 앞으로 상강과 장사포구의 모습까지 새겨져 있어 더 없이 친절하다. 둘에는 문자만 새길 줄 알았던 우리와 좋은 대비가 된다. 강당의 양쪽 벽에는 주희의 필적 충(忠), 효(孝), 염(廉), 절(節) 네 글자가 크게 새겨져 있고, 이밖에도 정제엄숙비(整齊嚴肅碑)와 악록서원학규비 등이 둘러쳐져 있다. 기둥 여덟 곳에는 대련이 걸려 있는데 좌종당(左宗堂), 풍우란(馮友蘭), 장대년(張岱年), 진영첩(陳榮捷) 등 귀에 익은 이름들이 보여 무척 반갑다. 잠시 그 강단 위에 섰을 사람들과 아래에서 그의 강의를 들었을 사람들을 그려본다. 앞에는 호랑이 같은 스승이 앉아 있고, 천장에는 금빛 찬란한 황제의 편액이 내리누르고, 옆에는 선현석학들의 말씀이 귓가에 쟁쟁하고, 그에 비하면 오늘날 우리의 교실 풍경은 너무 가벼워진 게 아닌지. 어차피 배움이란 본받고 따르는 것이 아니던가!

(6) 어서루

강당 뒷벽으로 난 문을 나서면 언덕 위에 어서루가 우뚝 서있다. 송 건축 스타일의 삼층 누각식 건물이다. 이곳은 교육, 제사와 더불어 서원의 3개 기능 중 하나인 책을 보관하던 곳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바로 도서관이다. 계단을 걸어올라 어서루 앞에 서면 서원의 풍경이 한 눈에 들어온다. 마치 황제가 남면하고서 앉아

만조백관을 굽어보는 듯하다. 건물이 처음 지어진 것은 북송 때 (999년 咸平2)로 당시에는 서루(書樓)라고 불렸으며, 그 후 여러 차례 다시 짓고 이름도 장경각, 존경각 등으로 고쳐 불렀다. 1687년 순무 정사공이 조정에 청하여 책을 하사받고서 지금의 땅에 어서루를 지었으며 그 뒤 여러 차례 중수를 거치면서 내려오다 1938년 일본 비행기의 폭격에 의해 만 4천 권에 달하는 책과 건물이 모두 불타 버렸다. 현존 건물은 1986년 이전 건물을 본 따 다시 지은 것이다.

(7) 사묘 건물군

어서루에 서서 내려다보면, 전통적인 ‘좌묘우학(左廟右學)’의 배치에 따라 어서루 왼편에는 사묘 건물들이 있다. 먼저 성리학의 개창자 주돈이(周敦頤) (호 濂溪 1017~1073)를 제사지내는 염계사(濂溪祠)가 맨 위에 있고, 그 아래로 주돈이를 이어 성리학의 기초를 놓은 정호(鄭濤), 정이(程頤) 형제를 제사지내는 사잠정(四箴亭), 이정의 학을 이은 주희와 장식을 제사지내는 송도사(崇道祠), 학술적으로는 그다지 유명하지 않지만 서원에 공적이 많은 이를 제사지내는 육군자당(六君子堂), 그리고 이곳에서 공부한 명말, 청초의 대 철학자 왕부지(王夫之) (호 船山, 1017~1073)를 제사지내는 선산사(船山祠)가 있다. 악록서원에서 제사가 가장 성했을 때는 청 가정(嘉慶) 후기로, 각종 사묘 건축이 30개 가까이 되고 제사 인물 수가 많게는 100인에 달하여 전국 서원 가운데서 가장 많았다고 한다. 문틈을 비집고 사묘 안을 들여다보니 제사가 끊긴 지는 이미 오래된 것 같다. 그래도 우리 나라 서원은 제사는 열심히 지내는데 말이

다.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서원이 애물단지나 구경거리 신세로 전락한 것은 마찬가지니 더하고 덜할 것 하나 없다. 그나마 선산사(船山祠) 건물이 호남대학 출판부 건물로 쓰이고 있어 좀 나을 법도 하지만 이 방문객의 씹쓰레함을 덜어 주지는 못하였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 악록서원에는 주향하는 인물이 없다. 그래서 우리 나라처럼 퇴계선생의 도산서원과 같은 말이 성립되지 않는다. 그만큼 중국 서원은 사학으로서의 특징이 약하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단순히 설립이나 운영 주체와 관계된 것이 아니라 사학으로서 서원이 가지는 독특한 역사적 지위가 그만큼 약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중국 서원은 관학의 보조적 역할을 많이 하였으며, 쉽게 관학에 통합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처럼 어느 한 선현의 체위를 강하게 느끼면서 그를 배우고 본받아 하나의 학파와 학맥으로 전승되는 데서 오는 ‘맛’과 ‘멋’은 중국 서원에서는 찾기 어렵다. 악록서원도 예외가 아니다. 더욱이 악록서원 안에는 공자를 모시는 문묘가 있어 서원의 맛을 크게 해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공자는 관학인 성균관과 향교에서만 받들지 사학인 서원에서는 제사 지내지 않는다.

(8) 문묘(文廟)

문묘는 사묘 건물들 뒤쪽에 있다. 서원 정면에서 보면 오른쪽 끝부분이다. 문묘는 원래 공묘라 불렀는데, 739년 당 현종이 공자를 문선왕이라 봉하면서 공묘가 문선왕묘가 되었고, 이를 줄여 문묘(文廟)라고 부르게 되었다.

악록서원에서 공자를 제사 지낸 것은 서원 설립 초기부터이다. 일찍이 북송 시기에 이미 예

전(禮殿)을 짓고 그 안에 선사(先師) 10철의 상을 조각하고 72현의 모습을 그려 봉안하였다. 명나라 때인 1505년 대성전이라 고쳐 부르고, 1507년 지금의 자리로 옮겼다. 청나라 때인 1624년 중수한 뒤 정식으로 문묘라고 불렀다. 지금 문묘 안에는 대성전 이외에 양무(兩廡)와 대성문, 석패루(石牌樓)등이 있다.

대문과 이문을 거쳐 서원 안으로 들어서면 정면에는 강당이 있고 좌우양쪽으로 건물들이 배치되어 있다. 바로 학생들의 숙소인 교학재와 반학재이다. 이 재사 건물은 서원 시작 때 이미 지어진 뒤 여러 차례 다시 지어지면서 확장되었다. 현존 건물은 1853년 원장 정선경(丁善慶)이 새로 지은 뒤, 1903년 서원을 근대식 학교로 개편할 때 고쳐 지은 것으로 이때 비로소 교학재와 반학재라 부르기 시작했다.

(9) 비랑

교학재와 반학재에서 어서류로 걸어 올라가는 계단에는 비랑(碑廊)이 서있다. 이 비랑은 1992년에 세운 것으로 대대로 전해 내려온 비각이 13개, 악록서원 문헌사료 비각 27개, 별비 1개로 꾸며져 있다.

대대로 전해오는 유명한 비각 중에는 당나라 때 새긴 녹산사비(麓山寺碑), 명나라 때 새긴 정자사잠비(程子四箴碑), 청나라 때 새긴 충효염절비(忠孝廉節碑), 도중용비(道中庸碑), 주희시비(朱熹詩碑) 등이 있다. 그리고 교학재와 어서루 사이의 비랑 바깥쪽에는 멋스런 정자를 짓고 그 둘레에다 원림을 꾸며놓아 당시 선비·학자들의 일상생활과 정신세계를 엿볼 수 있게 해준다.

필암서원과 중국의 웨루(嶽麓)서원 교류 추진

중국 호남대 자오위웨이총장과 김양수 군수
만나 협의

광주 호남대 공자아카데미의 제의로 이루어져

호남의 대표적인 서원인 장성의 필암서원과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중국의 대표서원인 악록서원이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장성군에 따르면 지난 8월 10일 광주 호남대학교 ‘공자아카데미’에서 자오위웨이 중국 호남대 총장을 만나 필암서원과 악록서원이 서로 교류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는 공자아카데미에서 중국어를 배워왔던 박영덕 장성경찰서장이 두 서원이 상생할 수 있는 교류 협력을 제안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날 만남에서 김양수군수와 자오위웨이총장은 두 서원의 활발한 문화교류는 물론, 장성군과 중국 호남대학교가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했다.

이와 함께 전국 사회교육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한 '21세기 장성아카데미'와 중국 전지역에 방송되는 호남대 명사초청 특강인 '논단'이 교류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도 조심스럽게 제시됐다. 특히 중재를 맡은 광주호남대학교는 양 기관의 실질적인 교류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8월 27일에는 김양수 장성군수와 천웨이(陳偉) 중국 호남대 부서기(부총장)가 두 서원의 교류와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천웨이 중국 호남대 부서기는 “필암서원을

둘러보며 교류의 필요성을 공감했다.”면서 “귀국 후 필암서원을 비롯하여 장성군과 보다 구체적인 교류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국 4대서원 중 하나로 호남성 장사시 호남대학교 내에 있는 악록서원은 천년학부(千年學府) 명성을 자랑하는 교육의 산실이다. 악록서원은 976년 송나라시대에 창건됐으며, 주자(朱子)가 강학할 때가 전성기였다. 명나라 말부터 청나라 때까지 왕부지(王夫之), 위원(魏源), 중국번(曾國藩), 좌종당(左宗棠) 등 당대의 걸출한 인재를 배출하였다.

김양수군수는 오는 10월 중국 저장성 이우시에서 열리는 국제소상품박람회에 참가한 후 호남대 악록서원을 방문해 구체적인 교류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필암서원과 악록서원 상호 초청-교류 합의 박병호원장, 김인수도유사, 박용우군과장 악록서원 방문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 중인 필암서원과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중국 악록(嶽麓)서원이 10월23일 중국 호남성 장사시 호남대 본관 3층 회의실에서 박병호 필암서원 원장과 주한민(朱漢民성) 악록서원 원장이 교류와 협력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인수 문정공도유사, 박영덕 장성경찰서장, 박용우 장성군 문화관광과장, 이정식 호남대 공자아카데미 원장, 강대익 장성군문화관광계장 등 30여명이 참석하였다. 한국의 서원과 중국의 서원이 공식적

으로 교류협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협약에 따라 두 서원은 제향 때 유림 및 서원 관계자를 상호 초청 교류하고,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21세기 장성아카데미와 악록서원 논단의 상호 초청 특강, 교육 프로그램연수와 교류, 문화예술단체 초청 공연 등도 함께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광주에 있는 호남대학교 공자아카데미에서 각 프로그램에 관한 협조 연락 업무를 맡아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장성군은 이번 협약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앞둔 필암서원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양수 장성군수는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파트너로서 지속적인 교류확대를 통해 공동발전을 이뤄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9월 30일 하서 김인후선생 추모 추향제 초헌관에 이정식 호남대 공자아카데미 원장

하서 김인후선생을 추모하는 추향제가 지난 9월 30일 장성 필암서원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오인균 산양회이사장, 송준빈 남간사도유사, 장원석 광주향교전교, 강대옥 성균관유도회 광주본부장, 정환담 광주 유교대학장을 비롯한 이고장 유림들, 김달수 울김대총회장, 김인수 문정공도유사와 종친들, 김양수 장성군수와 군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정식 호남대 교수가 초헌관을, 심정식 옥파향교유림이 아헌관을, 이형남 전북교육계 원로가 종헌관을 맡아 제향을 드렸다.

제향을 마친 뒤 초헌관을 맡았던 이정식 호남

대 공자아카데미원장은 ‘한중 호남 문화 속의 악록서원과 필암서원 교류 의미와 전망’이란 주제로 강론했다.

이정식원장은 “후난(湖南)성 창사(長沙)시 후난대에 있는 웨루서원은 송나라 시절인 976년에 창건돼 주희가 강학을 했던 유서깊은 곳”이라며, “명나라 말부터 청나라 때까지 왕부지(王夫之)등 걸출한 인재를 배출한 중국 4대 서원중 하나”라고 소개했다. “조선 선조 때 호남 유림이 하서선생의 학덕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한 필암서원은 웨루서원과 강학과 학맥에서 유사한 점이 많다.”며 두 서원의 교류는 한중 양국의 우호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제향 후 양 서원의 교류를 기원하는 행사로 성리학 강독대회, 하서 추모 한글 글짓기 시상식이 있었다. 금상을 수상한 조은새(중앙초등학교 5학년)학생이 ‘하서 김인후선생님’이란 글을 하서선생 영전에 봉독하였다

‘同春과 尤庵의 河西선생 존송’ 학술강연 김문준교수 7월 1일 필암서원 集成館에서

2013년 하계학술강연(31차)이 오인균 본회이사장을 비롯하여 송준빈, 박태근, 정남호, 장원석, 강대옥, 이개호 등 본회 회원 및 이고장 유림들, 김양수장성군수,장성교육지원청장, 박용우 군문화관광과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7월 1일 필암서원 집성관에서 있었다.

김장수 본회 감사의 ‘백록동학규’ 낭독에 이어 오인균이사장의 인사말이 있었다. 특히 문화재청에서 체험학습을 하도록 30명의 대학생들

을 보내주어서 강연이 더욱 활기를 띠었다.

이날 건양대학교 김문준교수가 ‘同春과 尤庵의 河西선생 존숭’(강연원고는 본회보 21집에 게재)이란 논제로 강연하여 열띤 호응을 받았다.

“우암 송시열과 동춘당 송준길의 하서 김인후 선생에 대한 존숭은 실로 대단한 것이었다.”고 김문준교수는 주장했다. 동춘당은 이곳에 필암서원을 짓는데 가장 앞장 섰다. 당대 절의의 상징인 김상헌(金尙憲)의 손자인 김수항(金壽恒)에게 상량문을 독촉하기도 했다.

우암 역시 하서선생을 기리는 일에 적극 앞장 섰다. 우암은 하서문집에 ‘서序’를 썼고, 하서의 신도비문을 썼다. ‘청풍대절(淸風大節)’이라는 글을 인용하여 강당을 淸節堂이라고 이름지었다.

동춘당과 우암 두 분이 하서선생을 누구보다 존숭한 것은 하서선생의 도학과 절의가 드높을 뿐만 아니라 하서선생의 천품이 청명온수(淸明溫粹)하고 청수부용(淸水芙蓉)같아 맑고 깨끗한 인간의 선(善)한 본성을 지닌 분이었기 때문이라고 결론지었다.

유학 발전의 초석

순창 訓蒙齋 제3회 강회

전국 각지에서 대학생과 유림 많이 참석

우리나라 유학(儒學)발전의 산실로 자리매김한 훈몽재에서 지난 7월 28일 제3회 강회가 열렸다. 이날 강회에서는 황숙주 순창군수를 비롯하여 최영일 군의회의장과 하서 학술재단 김인수이사, 김재익 삼양사감사, 오인균 산양회이사

장, 정운엽, 강대욱 등 전주 광주를 비롯한 전국 유림, 유학 관련 대학교수, 관내 유관기관, 사회단체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강회는 여름방학 동안 훈몽재에서 수학한 전주대, 원광대, 안동대, 상지대 60여명의 대학생들이 30일 코스 유학교육반을 수료하는 학문 진취도 시험이 유림 윤강을 통해 이뤄졌다. 암송과 문답으로 이뤄진 학문 진취도시험 결과 장원에는 전북대학교 허원(경영학과 4년)학생이 뽑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장원한 허원은 “교수님의 추천으로 훈몽재에 오게 됐는데 다른 서당과 비교가 안될 정도로 좋은 시설과 훌륭한 훈장님이 계셔서 학업성취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훈몽재 산장(山長)인 고당(古堂) 김충호(金忠浩)선생은 “인재는 한 두해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십년동안 공들여야 한다. 송강 정철 선생도 15세에 시작해서 60세에 대성했다.”면서 “유학이 침체된 현실이 안타깝지만, 순창에 훈몽재가 중건되어 강학의 장으로 활용되는 것은 매우 훌륭한 일이다. 앞으로 훈몽재가 순창을 빛내고 많은 후학들을 양성하는 전국적인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하서 김인후(河西 金麟厚)선생이 제자를 가르쳤던 훈몽재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순창이 우리나라 유학 발전의 산실임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됐다.

훈몽재에서는 유학 전문 교육, 부모님과 함께하는 예절교육, 여성교육반 등 교육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있는데, 6월 말까지 3000여명이

다녀갈 정도로 전국 각지에서 큰 호응 얻고 있다. 현재 군은 훈몽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취사장, 세탁실, 샤워실을 갖춘 양생관(養生館)을 8월 중순경 개관하려고 내부공사가 한창이다. 순창군민은 훈몽재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훈몽재를 이용하려면 관리사무실로 문의하면 된다.

‘세계 유산 한국의 서원협의회’ 워크숍 참가 10월 16~17일 안동 병산서원에서 열림

세계 유산 한국의 서원협의회 2013년 워크숍이 지난 10월 16~17일에 안동시 병산서원에서 개최되었다. 필암서원 대표로 본회에서 김인수 도유사, 김재수이사, 김상집회원이 참석하였다.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준비중인 9개 서원 대표들이 모여 ‘21세기 선비, 나의 바람직한 삶’이란 주제로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 김병일 이사장이 강연하였고, ‘서원문화의 계승과 효율적인 활용방향’이란 주제로 이해준 한국서원학회회장(공주대 사학과 교수)이 앞으로 9개 서원이 해야할 일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강의하여 많은 도움을 주었다. 9개 서원이 배향한 인물들의 역사와 배경이 각각 다르니 다른 서원을 따라하지 말고 각 서원 배향인물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달라고 제안하였다.

유서깊은 병산서원의 아름다운 자연을 둘러보고 서원의 따뜻한 방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침에 피어오르는 낙동강의 물안개를 감탄하면서 아침을 먹고 헤어졌다. 돌아오는 길에 함양 지곡면의 일두 정여창선생의 종가를 방문한 후 건너편 남계서원을 방문하고 돌아왔다.

하서 김인후 선생과 필암서원 특별전 9월부터 11월 24일까지 국립광주박물관에서

하서 김인후선생과 필암서원을 집중 조명하는 전시회가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기간에 맞춰 국립광주박물관 2층 유교문화실에서 9월부터 11월 24일까지 열렸다.

전시는 총 4부로 구성됐다. 1부에서는 인종대왕 묵죽도(仁宗大王墨竹圖)를 통해 인종과 하서의 관계를 조명하였다. 하서는 1543년 당시 세자였던 인종의 스승으로 깊은 인연을 맺게 된다. 2부에서는 하서의 생애 및 학문세계와 관련된 유물을 소개하였다. 연방동년일시조사계회도(蓮榜同年一時曹司契會圖), 동호계회도(東湖契會圖) 등을 통해 하서의 행적을 들여다볼 수 있다. 3부에서는 필암서원의 역사를 짚어보고, 4부에서는 하서의 사후(死後)평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전시 유물은 2001년 울산 김씨 문정공 대종중에서 기증한 것들이다.

필암서원 홈페이지 금년 말 개설 준비 밀등회 金鐘根 회장의 200만원 후원으로 추진함

지난 8월 16일 하서회(河西會) 제7차 모임이 전남대 공대 7호관 김병기교수 강의실에서 있었다. 밀등회 김종근회장이 필암서원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필암서원에 기증하기로 하고 200만원을 후원했다. 제작을 맡은 <큰 생각> 대표 김우조사장의 설명을 듣고 의문난 것을 묻고 김병기교수가 조목조목 점검하여 확약을 받았다. 도산

서원 홈페이지와 남명학연구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구성요소를 작성하기로 하고 김병기교수, 김병원, 김상집회원이 책임을 맡아 추진하기로 했다.

9월 16일 8차 모임에서 김상집 하서회총무가 열심히 준비한 홈페이지 기본 골격안을 발표하고 의견을 들었다.

10월 15일 07시에 무등산 추어탕집에서 조찬 모임을 갖고 홈페이지 기본골격에 대해 논의하고 다소 비용이 추가되더라도 용량을 충분히 확보하자고 합의했다. 연말 개설을 목표로 김상집 총무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뜨거운 박수 갈채 받은 '기씨 부인전'

장성군 자체제작 연극, 0틀간4차례 공연 매진

장성군이 자체적으로 제작한 연극(음악극) '기씨부인전' <사진>이 주민들의 뜨거운 박수갈채와 호평을 받았다.

장성군 문화시설사업소는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장성문화회관에서 청소년 및 주민 등 900여명을 대상으로 총 4차례에 걸쳐 '기씨부인전' 공연을 개최했다.

군이 총괄 제작하고 극단 연바람(대표 오성완)이 연출을 맡은 '기씨부인전'은 청렴과 충절의 고장인 장성군의 특색을 반영, 조선 중기 대학자인 '고봉 기대승'의 딸이자 지역이 배출한 덕망 높은 문장가인 '하서 김인후'의 손부인 기씨 부인에 관한 실화를 바탕으로 구성됐다.

작품은 조선시대 정유재란 때(1597~1598) 피난 중이던 기씨 부인이 황룡 요월정에서 왜군에게 손목을 잡히자 정절을 지키기 위해 은장도

로 팔을 절단하고 황룡강에 투신한 애절한 스토리를 극화했다. '기씨부인전'은 지난 군민의 날 기념식 때 첫 선을 보인 이후 입소문을 타 이번 공연 때 4회 전석 매진을 기록했다.

필암서원 음악회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등재를 기원하고 서원의 교육적 기능을 복원하여 미래 세대에게 선비 문화를 계승발전시키며 문화 유산을 효율적으로 보존 관리하고 활성화를 기원하는 필암서원 음악회를 2013년 11월 3일 오후 3시부터 필암서원 청절당 앞 광장에서 열었다.

필암서원 음악회에서는 박영주 내드름단장, 진도북춤-박지용 전남도립대교수, 아쟁산조-이용호 초당대교수, 포크가수-안병철 키브라더스 멤버, 트럼펫 및 재즈보컬 등의 열창이 있었다.

이행사는 "한국 서원의 세계 문화유산이 되라"는 행사로 (사)대동문화재단이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후원으로 세계문화유산 잠정 목록으로 선정된 9개서원을 순회하며 공연하고 있다.

참석인원은 약 200명으로 안동, 대구에서 각각 버스 1대에 관람객이 탑승 참석하였으며, 광주 장성 유림과 학생들이 관람 성황을 이루었다.

본회 회원 김양수 장성군수

한국의최고 경영인상 고객만족 경영부분 수상

장성군(군수 김양수)은 우리의 전통 사상과

미덕을 발굴하고 가치를 부여하여 관광 및 교육 자료로 삼은 신선한 아이디어로 주목을 끌고 있다. 이런 아이디어를 내고 실현한 주인공은 김양수 군수이다. 지역의 역사적 인물, 인문학 등 교육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던 김 군수는 2011년 이 지역 출신의 조선 시대 청백리 아곡 박수량과 지지당 송흠을 통한 교육과 관광을 융합한 체험교육을 구상했다.

청백리 정신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청림 문화체험교육'은 1박2일, 2박3일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1부에서 박수량과 송흠의 생애와 공직관에 대한 강의를 듣고 2부에서는 박수량을 기리는 백비, 송흠의 관수정, 축령산 등을 돌아본다. 정성껏 차린 청백리 자연밥상으로 식사를 하고, 청백한옥에서 숙박을 하면서 참가자들은 자연스럽게 겸허한 마음과 봉사정신을 갖게 된다.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장성군은 청림 문화 체험교육 활성화를 위한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책식 위주의 청림 자연밥상 개발, 필암서원 집성관에 청림문화원을 설치했다. 청림문화 체험교육 교재와 교육 성과를 담은 홍보 책자도 발간했다. 현재까지 청림문화교육원을 다녀간 공직자는 전국 188개 기관에서 2만7607명에 이른다.

장성군은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으로 주민생활 안전망 구축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안전행정부가 전국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2012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생활방법, 재난상황실, 초중고교의 CCTV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CCTV 393대를 설치했다.

노인들만 남아 있는 농촌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귀농인 지원 정책도 마련했다. 귀농인·이주 희망자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인터넷 복덕방을 열어 주거 정보를 제공하며 10명으로 이루어진 귀농·귀촌 지원단이 재배 작목이나 창업 등을 상담해주고 있다.

귀촌 주민을 위한 농어촌 뉴타운(장성드림벨)을 준공하여 현재 200가구 이상이 정착했으며 황룡행복마을, 덕성행복마을, 북이전원마을도 조성 중이다.

임기만료 이사 보충을 위한 이사회 개최 오인균이사장 퇴임하고 새 이사장에 정환담 이사 추대

지난 10월 9일 17시에 예원식당에서 '임기 만료 이사 보충을 위한 긴급 이사회'가 열렸다. 오인균이사장, 장원석, 정채호, 김인수, 정환담, 김재수, 박래호, 양희택, 이충원, 김병국이사장과 김장수감사가 참석한 이날 이사회에서 6년동안 본산양회의 회장, 이사장으로 헌신하여 본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신 오인균이사장이 퇴임하고, 10년동안 부회장, 이사로 수고하신 장원석이사가 자진 사퇴하고 정채호, 김인수, 정환담이사를 재선임하고, 새 이사에 김용숙 본회상임고문, 김장수 감사를 새 이사로 선임하였으며, 신임이사장으로 정환담(鄭煥淡) 이사를 추대하였다. 감사로는 김승규를 선임하였다.

이충원 이사의 설명에 따라 승낙서 및 서류를

갖추어 등기절차를 밟도록 이충원 이사에게 일임하였다.

2013년 정기총회 준비를 위한 이사회 산양회보 22호 편집회의도

지난 11월 5일 17시 예원식당에서 본회 이사회가 열렸다. 오인균 전이사장, 정환담 신임이사장, 김용숙, 박래호, 양희택, 김재수, 이충원, 김장수 이사, 김종환, 김승규 감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사회에서는 본회 이사장 교체에 따른 법인등기서류를 제출받고, 2013년 정기총회 준비 및 산양회보 22호 편집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먼저 이충원 이사가 법인등기 변경에 대한 경위를 설명하고 서류를 수합하였다.

2013년 정기총회는 12월 12일(목)~13일(금), 또는 19일(목)20일(금) 가운데 초청강사와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김재수이사에게 일임하였다.

초청강사로는 광주대학교 고영진 교수에게 청탁하기로 결의했다.

이어서 본회 발족부터 참여하셨고 지난 6년 동안 산양회를 헌신하여 이끌어오신 오인균 이사장님이 퇴임 인사말을 하셨다. 신임 정환담 이사장은 부족하지만 열심히 심부름을 하겠다고 인사하고, 앞으로 이사들의 직무분담 계획을 세우자고 제안하고 김재수 이사에게 계획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김용숙 신임이사는 산양회 발족에 애썼기 때문에 산양회에 애착이 많았다고 인사했다. 초창기 본회 총무를 역임했고 지금까지 감사로 회보편집위원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김장수 신임이사는 젊은 세대를 끌어들이

자고 말했다. 김승규 신임 감사는 산양회를 열심히 이끌어오신 이사님들께 본손으로서 감사 드린다고 인사했다.

김재수편집주간 '현대의 신심계명과 愆' 강연 광주향교에서 열린 22회 유림지도자연수회에서

지난 10월 11일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 성균관 유도회 광주광역시본부 주최로 제22회 유림지도자 연수회가 열렸는데, 김재수 본회보 편집주간이 <현대의 신심계명과 愆>라는 주제로 강연하였다. 이날 박약회장(博約會長) 이용태 박사가 <선비의 마음가짐과 人性教育>을 강연하여 유림들이 해야할 일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깊은 감동을 주었다.

지난 11월 20일에 광산구민회관에서 성균관 유도회 광산구지부에서 개최하는 제22회 '도덕성회복 윤리선양대회' 초청되어 위와같은 주제로 강연하였다.

하서학술재단(河西學術財團)

필암서원 학술 행사에 2500만원 지원

재단법인 하서학술재단 김상하 이사장은 2014년도 '필암서원'이 주최하는 학술행사, 문화행사 등에 2천 5백만원을 지원한다.

김상하 이사장은 호남에서 유일하게 문묘에 배향되시고 동국18현이신 하서 김인후 선생을 모신 필암서원이 문화재청 문화유산 위원회에서 '세계문화유산등제 신청'이 의결되고, 전국 670개 서원 중에서 최초로 외국 서원(중국 악록

서원)과 학술·문화교류와 우호협력을 위하여 협의서를 체결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한국서원의 선도적 역할 및 모범이 되기를 당부하였다.

하서학술재단에서는 “하서 김인후의 사상과 학문”, “조선의 통치철학”, “한국 한시감상”등 10여 편의 책을 발행 전국 도서관 유림등에 배부하여 하서 김인후의 사상과 정신을 널리 선양하는 일을 하고 있다.

악록서원 주한민 원장 필암서원에서 특강

악록서원은 강학 중심

한국서원은 제향 중심

장성군과 필암서원, 중국 호남대학과 악록서원은 상호 교류를 위하여 지난 10월 23일 중국에서 협의서를 체결한 후 처음으로 서원 관련 학술발표를 위하여 필암서원을 방문하였다.

12월 1일 필암서원에 도착한 주한민 악록서원 원장 일행은 ‘우동사’에서 한국식으로 알묘를 마치고 집성관 교육관에서 ‘악록서원과 중국의 문화’에 대한 특강을 하였다.

주한민 원장은 서원의 본래 설립목적인 강학, 장서, 제향의 3대 기능 중에서도 강학을 제일의 목표로 악록서원을 운영하고 있으나, 한국 서원은 강학보다 제향을 제일 목표로 운영하고 있어 중국과 차이가 있었다고 소감을 전하였다.

주원장은 악록서원이 중국 4대 서원중 하나이지만 한번도 4대 서원에서 제외된 예가 없으며 일천년을 계속 중국의 대표 서원이었으며, 천년동안 후학 교육을 잠시도 멈추지 않는 서원

이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주원장은 “악록서원의 부흥은 한 가지 위대한 문화교육사업이다. 가깝게 보면 전통교육과 현대교육의 교량 역할을 하고, 현대 교육계획과 발전을 전극적으로 계발하여 타의 모범과 선례가 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멀리 보면 중화문화전통의 계승과 창신의 관건이 된다. 악록서원은 호남대학의 전신으로 중국 전통문화와 전통교육의 전범이다.

중화민국의 위대한 부흥을 맞은 이 시기에 악록서원은 이미 전국적으로 중요한 국학교육과 연구의 터전이 되었고, 중화문화와 교육의 현대 중건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공헌하고 있다.”며 특강을 마무리하였다.

경남 거창군 유도회 가북면 지회

金昌俊 회장 등 81명 필암서원 봉심

지난 8월 29일 경남 거창군 유도회(儒道會)가 북면 지회 김창준 회장과 이상옥 총무는 회원 81명과 함께 박동복(朴東福) 거창군 향교 전교, 신석봉(愼碩奉) 거창군 유도회회장을 모시고 필암서원 우동사를 봉심하고 청절당(淸節堂)에서 회의를 하고 나서 박래호 총무장과의 강의를 들었다.

경남 고성 향교 유림 73명

필암서원 우동사 봉심

지난 11월 1일 경남 고성향교 유림 최낙도(崔洛圖), 이재호(李在鎬), 허창무(許昌武), 최근호

(崔謹鎬), 김의일(金義一) 외 73명이 필암서원 사당을 봉심하고 박래호 총무장과의 강의를 들었다.

최근 장성군이 시행하고 있는 청렴교육생 25,000여명이 서원을 찾고 해설을 들었다. 알묘(謁廟)를 목적으로 찾아온 유림들의 수도 많아졌다.

陶山書院 선비문화 수련원

이동원 부원장 일행 35명 사당 봉심

지난 11월 5일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 이동원(李東源) 부원장과 유청학(柳淸鶴), 유영일(柳永一), 남청룡(南靑龍), 김영호(金泳鎬), 이동경(李東敬)외 35명이 사당을 봉심하고 강의를 들었다.

선비학당 서예전 열고

中庸 공부 마치고 論語 공부 시작하다

필암서원 선비학당 수요반은 11월 18일 우봉집재영(于峯 金在榮), 덕산 김상옥(德山 金相玉)을 비롯한 회원들의 서예 작품을 장성군 교육청 공공도서관 2층에 전시하였다. 서예를 지도한 신우 김홍식(宸宇 金弘植) 선생과 노강 박래호 선생이 찬조 작품을 전시하였다.

또한 목요반 서우회(書友會) 고재일 회장, 양희택 총무를 비롯한 12명은 中庸(中庸)공부를 마치고 논어(論語)공부를 시작하기로 하였다.

너는 저 우주와 하나가 될 수 있는 존재이다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진실한 공부이다.

인간은 공부해야 하나까? 신유학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바로 너의 존재는 저 우주와 곧바로 연결된 존재이며, 너는 가장 위대한 우주의 산물이다. 너의 감정과 생각은 우주의 감정과 생각이며, 너는 지금의 너를 넘어서서 저 우주와 하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존재이다. 그러한 사실을 알려 주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배우는 것이 바로 진실한 공부이다. 네가 태어난 이유는 저 사랑의 우주가 명령해서이고, 너는 이러한 사명을 통해 다른 우주의 일원을 보살피고 돕는 것이다.”

근대 세계에 사는 인간들은 욕망을 추구할 자유를 보장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삶의 황폐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고삐 풀린 욕망의 추구는 공동체보다는 개인을 더 중시하고, 개인조차도 이기적이고 물질적 욕망에만 한정해서 파악합니다. 신유학은 인간의 진정한 욕망은 이기적이고 물질적 욕망에만 한정해서 파악합니다. 신유학은 인간의 진정한 욕망은 이기적이고 물질적인 차원에서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신의 내적 본성과 합치되지 않는 욕망은 자신은 물론 사회에까지 해를 끼친다고 가르칩니다. 내적 본성과 합치되는 욕망이란, 자신이 그에 이르는 길을 스스로 실천하고 각성을 통해서 성취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렇게 자신을 위한 공부, 즉 위기지학(爲己之學)이 지금 이시대에 더욱 절실한 것입니다.

위기지학을 통해 인간은 몸과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은 지금 사대가 말하는 공리주의, 자유주의, 쾌락주의로는 도달할 수 없는 경지입니다.

김우형, 이창일 지음

〈신유학 새로운 문명을 꿈꾸다 - 244쪽에서〉

入會를 환영합니다

姓 名	金 額
담양 대전면 丁鍾澈	30,000원
장성군 장성읍 金相權	30,000원
광주 서구 郭龍鮮	30,000원
광주 북구 鄭炫中	30,000원

特別會費 誠金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지면을 통하여 감사드립니다.

姓 名	金 額
산양회 감사 김승규	200,000원
산양회 이사 김재수	300,000원
산양회 이사 김장수	100,000원

추모 화환

울산김씨 대총회장 김달수
광주향교 전교 장원석
성군관 광주 본부장 강대욱
문정공 도유사 김인수
장성종친회장 김영풍
장성울산김씨밀등회장 김종근
광주향교 모성회장 김종재
광주 종친회장 김병철
황룡면 농협조합장 화분
그레이스유통 김동원

2013年 9.30(陰曆 8.26)
筆巖書院 秋享祭 獻誠金

금 액	성 명	주 소
2,000,000	학술회	필암서원 학술회
2,000,000	김영수	태양전자 회장(본손)
500,000	오인균	필암서원 산양회장
500,000	김인수	문정공 대종중 도유사
200,000	김양수	월평파(본손)
200,000	김달수	울산김씨 대총회장
100,000	정환담	광주향교 유교대학장
100,000	김상현	문정공 부도유사
100,000	김종환	문정공 친목회 회장
100,000	김재승	전 전남대 교수(운영위원)
100,000	이형남	전북 임실군 지사면 현관
100,000	김상백	광주 종친회 총무
100,000	김문수	M.S 토피스 대표
100,000	이진행	함평군 문화원장
100,000	양연수	장성군 교육장
100,000	양재혁	소쇄원 15대 종손
100,000	김창수	계파장산 도유사
100,000	김관중	장파 도유사
100,000	김상열	하서 학술재단 이사
100,000	송준빈	대전 남간사 유회 회장
50,000	조갑호	담양군 대전면 행성리(제관)
50,000	정종연	장성군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회장
50,000	양중호	담양군 수북면 쪽재골길 84
50,000	김진환	황룡면 농협장
50,000	차광근	장성군 축협장
50,000	김상권	전 황룡면 조합장
50,000	김재수	전 광주교대 교수
50,000	임송호	순창군 문화관광 계장
50,000	김영수	황룡면 면장
50,000	김성수	전 장성 축협장
50,000	김경수	전 장성전신전화국장
50,000	이재근	장성군 노인회장
50,000	변원	봉암서원 별유사
50,000	김만중	
50,000	송계서원	
30,000	김용규	
7,580,000	합계	

— 목 차 —

先人들과 같이 우리도 儒學의 근본 정신으로 개혁합시다 (이사장 취임사) 정환담	1
山仰會長 임기를 마치고 오인균	3
훈몽재 강회 취지 김충호	5
河西 김인후, 그리고 그가 만났던 사람들 고영진	6
千年學府 악록서원 강대익	16
필암서원·산양회 소식	23

— 알 림 —

1. 변경된 새 주소와 전화번호 써 주십시오.

- 앞으로 새 주소록을 만들려고 하니 새로이 시행될 주소와 변경된 전화번호를 방명록에 꼭 적어주십시오

2. 회비 입금 계좌 및 입회 절차 안내

- 회원님들께서는 장성 농협(301-0093-8931-91) (사)필암서원 산양회 계좌로 가입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규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은 강연회 또는 춘추향제에 나오시거나 전화로 가입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위의 농협 계좌로 입회비 3만원을 입금하시고 전화(010-2705-6395 김재수)로 다음 사항을 알려주십시오.
- ①성명(한문) ②본관 ③아호(한문) ④생년월일 ⑤주소 ⑥전화번호(주택, 휴대폰) ⑦학력 및 경력, 현직

3. 청·장년, 여성 유림의 입회를 적극 환영합니다.

사단법인 필암서원 산양회 이사장

2013년 32차 학술 강연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 일시·장소 : 2013년 12월 13일(금요일) 11:00 광주 향교 유림회관
- 주제 : 하서 김인후, 그리고 그가 만났던 사람들: 고영진 (광주대학교교수, 한국사 전공)

... 筆巖書院 山仰會 活動事項 ...

- 2004. 3. 9일 춘향제를 올리고, 서울大 박병호 교수가 河西 선생이 정연과 세자시강원에서 강한 내용을 조선왕조실록에서 뽑아강연함.
- 2004. 9. 25일 추향제를 올리고, 최근덕 성균관장이 ‘河西의 학문적 연원과 성리학적 위치’라는 주제로 강연함.
- 2004. 12. 10일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 ‘河西의 經濟思想’이라는 주제로 고려대 이현창 교수가 강연함. 山仰會報 4호 발행.
- 2005. 3. 28일 춘향제를 올리고, ‘한국 유림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주제로 고려대 전 총장 洪一植 박사가 강연함.
- 2005. 6. 30일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 하계 학술강연. 연세대 송주호 교수가 ‘河西詩의 몇 가지 국면’이라는 주제로 강연.
- 2005. 9. 20일 추향제 올리고, ‘河西 선생의 생애와 사상’이라는 주제로 이준범 고려대 전 총장이 강연함.
- 2005. 12. 8일 산양회 정기총회 및 학술강연, 박종달 회장이 연임되고, ‘河西 선생의 中和思想’이란 주제로 전주대학교 吳鍾逸 교수가 강연함.
- 2006. 3. 20일 춘향제를 올리고, 노강 박래호 총무가 河西 선생의 『復性賦』를 낭독하고 강론.
- 2006. 7. 5일 광주 향교 유림회관에서 하계 학술강연. 서강대 백승중 교수가 ‘조선전기의 사림정치와 하서 김인후’라는 주제로 강연함.
- 2006. 10. 1 추향제를 올리고, ‘政治人이 우러러보는 河西 先生’이라는 주제로 초헌관 李重載 상임고문이 강연함.
- 2006. 12. 13 정기총회 및 학술강연 「하서 김인후와 미암 윤희춘」이란 주제로 조선대학교 이종범 교수가 강연함.
- 2007년 4. 3 춘향제 올리고 ‘하서선생이 21세기에 유림에게 던지는 메세지’란 주제로 변은섭 유도회 총본부 회장이 강연했음.
- 2007년 12. 21일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 「조선시대 禮學의 발전과 禮治」라는 주제로 광주대학교 고영진 교수가 강연. 산양회보 10호 발간. 吳仁均 신임회장 선출.
- 2008년 3월 18일 춘향제 올리고, 「하서선생과 가사문학」이란 주제로 문경규 전 담양군수 강론.
- 2008년 7월 17일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 박준규 박사가 「河西 문학의 道學의 이해」 강연. 산양회보 11호 발행.
- 2008년 9월 20일 추향제 올리고, 柳承國 원장이 「東아시아 사상 基調로서의 道와 河西思想」이라는 주제로 강연.
- 2008년 12월 23일 광주향교에서 정기총회. 김재수 교수가 「河西는 佯狂爲奴論을 왜 썼는가」 강연함. 산양회보 12호 발간.
- 2009년 3월 13일 필암서원에서 春香祭 올리고 安炳周 박사가 「하서 김인후 선생의 학문」을 주제로 강연.
- 2009년 7월 1일 崔山斗 先生の 도학정신(최대우 교수) 강연, 山仰會報 13호 발간.
- 2009년 9월 29일 추향제. 이동준 성균관대 전 유도대학장이 「하서 선생의 학문 세계」 강연.
- 2009년 12월 23일 광주향교에서 정기총회, 이준영 감사 「예기유행편」강독, 산양회보 14집 발간.
- 2010년 3월 28일 춘향제 올리고 하서 선생 도학과 절의에 대한 강연.(金東炫 울곡사상연구원 이사장)
- 2010년 7월 7일 필암서원 집성관에서 선비정신 확산을 위한 우리의 노력 (김병일 한국국학진흥원장) 하서 선생의 上李太守書에 대하여 (金正洙) 강연, 산양회보 15집 간행
- 2010년 12월 16일 광주 향교에서 정기총회, 선비의 시각으로 파악한 河西 선생 : 오종일(전주대 명예 교수)강연
- 2011년 3월 23일 춘향제 올리고, 김병일 원장 「선현이 맺어준 아름다운 인연」을 주제로 강연
- 2011년 7월 6일 집성관에서 ‘한국 유학의 현대화를 위한 논점 세 가지’ (전남대 김기현 교수 강연) 회보 17호 발간
- 2011년 9월 9일 추향제 올리고 초헌관 심우영(전 총무처 장관, 전 한국국학진흥원장 장관) 강연
- 2011년 12월 20일 광주 향교에서 정기총회, 하서 김인후의 誠敬 사상 : 이애희(강원대 교수) 강연
- 2012년 3월 7일 춘향제, 초헌관 최상옥 회장
- 2012년 7월 4일 집성관에서 ‘하서 선생의 시문학에 대한 후인들의 평가’ 박명희 박사(전남대 호남학 연구원)
- 2012년 10월 3일 추향제 올리고, 초헌관 박병호 원장 「하서 선생에 대한 사관(史官)의 평가」강연
- 2012년 12월 27일 광주향교에서 정기총회, 정환담 학장 : 「하서 사상의 현대사적 재조명」강연
- 2013년 3월 22일, 춘향제 올리고 초헌관 이낙연 의원 「河西의 出處는 오늘날 공직자의 귀감」강연
- 2013년 7월 1일, 집성관에서 ‘동춘당과 우암의 하서 존승’ 김문준 교수 강연(전양대)
- 2013년 9월 30일 추향제 올리고 초헌관 이정식(호남대 공자아카데미 원장)이 ‘한중 호남 문화속의 악록서원과 필암서원 교류 의미와 전망’이란 주제로 강론